

조선본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수록된 팔진도 분석

홍을표*

1. 머리말
2. 『기효신서』 팔진도(八陣圖)의 출처
3. 팔진도 소개
4. 팔진도의 네 가지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명나라 남병(南兵)들의 전법을 관군들에게 훈련시키고자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도입하였다. 이후 조선은 전통전법인 오위진법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五衛陣法)¹⁾을 척계광의 원앙진법(鴛鴦陣法)으로 대체하여 오랫동안 관군의 군사훈련 교리로 활용하면서 『기효신서』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병학지남(兵學指南)』·『병학통(兵學通)』·『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연병지남(練兵指南)』 등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였고, 『조련도식(操鍊圖式)』이나 『무예제보(武藝諸譜)』와 같은 무술교범도 제작하였다.

『기효신서』는 개인의 저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연기신편(演機新編)』을 비롯하여 『풍천유향(風泉遺響)』이나 『악기도설(握奇圖說)』과 같은 문헌들은 척계광의 병서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진법²⁾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팔진도는 제갈량이 만든 것이고, 제갈량이 만든 팔진도는 황제(黃帝)와 풍후(風后)의 전법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지, 그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³⁾ 팔진도는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적지 않은 인물들에 의해 연구되다가 명나라 무종(武宗 1505~1521) 때 남장(藍章)⁴⁾과 용정(龍正)⁵⁾에 의해

1) 오위진법(五衛陣法)에 대한 분석은 “홍을표, 「조선후기 척계광의 戰法에 대한 논의」, 『韓日關係史研究』 제44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 90~92쪽”에 발표한 바 있다.

2) 진(陣)이란 부대가 전투하기 위해 결속한 조직 또는 대형을 말하며 법은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이다.

3) 龍正, 『八陣合變圖說(이하 『圖說』로 약칭)』[『中國兵書集成』 40冊,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3], 3쪽. “昔者, 漢之諸葛, 大名垂於宇宙, 而成于八陣者. 居多, 諸葛之八陣, 昉于黃帝風后, 而實得于心法, 非專推演也.”

4) 남장(藍章 1453~1526)의 자는 문수(文綉), 호는 대로산옹(大嶗山翁)이다. 성화(成化) 20년에 진사가 되어 무원(婺源)과 잠산(潛山)의 현령이 되었고 귀주감찰어사·절강순무·산서태부시소경·대리사우정위 등을 거쳐 정덕 원년에 도찰원좌첨도어사가 되었으나 유근(劉瑾)의 미움을 사 하옥되었다가 무주(撫州)의 통판(通判)으로 귀양갔으나, 유근이 실각하자 다시 발탁되어 섬서의 순무가 되었다[『中文大辭典』 8권, 161쪽].

5) 용정(龍正 ?~?)은 무도(武都) 사람으로 명나라 정덕 연간에 한중(漢中)에 있는 남장의 진중에서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행장기는 찾아보기 어렵다[臧勵和 等編, 『中國人名大辭典』, 中國 上海書店印行, 1984. 1632쪽].

1516년경에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이 저술되었고⁶⁾, 이것은 조선본 『기효신서』에까지 수록되었다.

그러나 근래 진법(陣法)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팔진을 비롯한 고대 진법은 단지 문헌에 표기된 도식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법에 대한 연구는 1981년 허선도가 「〈진법(陣法)〉고(考)」⁷⁾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3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병장설(兵將說)·진법(陣法)』⁸⁾을 번역하여 조선의 진법을 접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1987년에는 황병국이 「조선조의 진법고찰」⁹⁾을 발표하였다. 1990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성백효가 번역한 송규빈의 『풍천유향(風泉遺鄉)』¹⁰⁾을 출간했는데, 그 가운데 상승진(常勝陣)과 검차(劍車)에 대한 내용이 있다. 1996년에는 김광수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¹¹⁾을 발표하였고, 1997년에는 노영구가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를 게재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 놓은 바 있다.¹²⁾ 백기인은 1998년에 「고대중국의 군사

6) 『圖說』, 6쪽.

7) 許善道, 「〈陣法〉考」, 『軍史』 제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

8) 國防部軍史編纂委員會, 『兵將說·陣法』, 三和印刷株式會社, 1983.

9) 黃秉國, 「조선조의 진법고찰」, 『軍史』 제15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7.

10) 『風泉遺鄉』은 正祖 2년(1778)에 宋奎斌이 저술한 책으로 자신의 국방과 사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11) 김광수,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제50호, 육군사관학교, 1996.

12)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제34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조선증간본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 『군사』 제3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양완의 악기도설과 전차 운용론」,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1999.

조직과 진법운용」을 시작으로 적지 않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³⁾ 이 외에도 서영교는 2002년에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¹⁴⁾를 발표하여 신라 때 당나라의 육화진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충장공 양헌수¹⁵⁾ 대장 기념사업회에서 양완의 『악기도설(握奇圖說)』을 번역하여 『국역 악기도설』¹⁶⁾

-
- , 『오위 진법의 복원과 「(御定)隸陳總方」』, 문헌과 해석사, 2000.
 - , 「조선후기 군사 조련의 기본서 『兵學指南』」,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 해석사, 2000.
 - , 「한교의 練兵指南과 戰車 활용 戰法」,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01.
 - , 「임진왜란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 , 「조선 후기 短兵 전술의 추이와 무예도보통지의 성격」, 『진단학보』, 진단학회, 2001.
 - , 「18세기 전차 제작 논의와 운용 전법의 모색」, 『기술과 역사』, 한국산업기술사학회, 2001.
 - , 「正祖代 五衛體制 復舊 시도와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진단학회, 2002.
 - , 「병학지남(兵學指南)에 나타난 조선후기 수군의 전투 훈련」,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03.
 - , 「한교(韓嶠)-조선의 병학을 정립한 성리학자」, 『한국사 인물열전2』, 돌베개, 2003.
 - , 「조선시대에 재현된 고전 진법의 형태와 내용」,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05.
 - , 「조선시대 군사훈련을 통한 전투 복원」, 『군사학연구』,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8.

- 13) 白奇寅, 「古代中國의 軍事組織과 陣法運用」, 『軍史』 제3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
- , 「東亞3國 近代 戰法 形成의 軍事思想的 背景」, 『軍史』 제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 『朝鮮後期 國防論 研究』, 해안, 2004.
- 14)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제116호, 한국사연구회, 2002.
- 15) 양헌수(梁憲洙 1816~1888)의 본관은 남원이며 자는 경보(敬甫)이다.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를 대파하였다. 충장공 양헌수대장 기념사업회, 『國譯 河渠集』, 기창족보사, 2005, 1~11쪽.
- 16) 金永吉 譯, 『國譯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고, 2008년에는 최형국이 쓴 「군사들의 진법, 그 비밀을 풀다」¹⁷⁾가 발표되었다. 2009년에는 곽낙현이 무예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¹⁸⁾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의해, 유재성이 번역한 안명노의 『연기신편(演機新編)』¹⁹⁾을 출간하였다. 2011년에는 곽낙현의 「조선후기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에 대한 검토」²⁰⁾, 김동경의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²¹⁾, 최형국의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²²⁾ 등이 발표된 바 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유재성이 번역한 조선본 『기효신서(紀效新書)』 중 상권²³⁾을 간행하였다. 2013년에는 김동경의 「고대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法)’의 구조적 특징」이 소개되었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기효신서(紀效新書)』 하권²⁴⁾을 간행하였다.²⁵⁾ 2014년에는 최형국이 「조선초기 전술체계와 제주 전마(戰馬)」를 발표하면서 진법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²⁶⁾

필자는 2008년 「풍후의 악기경 연구」를 시작으로, 「고대 진법의 원리», 「제갈량 팔진법의 탐구»,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앙진과 팔진

-
- 17) 최형국, 「군사들의 진법(陳法), 그 비밀을 풀다」, 『인물과 사상』 제120호, 인물과 사상사, 2008.
- 18) 곽낙현,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제35호, 동양고전학회, 2009.
- 19) 安命老, 柳在城 譯, 『演機新編』,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10.
- 20) 곽낙현, 「조선후기 『紀效新書節要』에 대한 검토」, 『東洋古典研究』 제42집, 동양고전학회, 2011.
- 21)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제53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 22) 최형국,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 『국방부 간행물』 제78호, 국방부, 2011.
- 23) 유재성 역, 『紀效新書(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 24) 유재성 역, 『紀效新書(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25) 김동경, 「고대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法)’의 구조적 특징」, 『軍史』 제8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26) 최형국, 「조선초기 軍史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軍史』 제9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원리, 「서진 마룡의 서정으로 본 팔진도」, 「조선 후기 척계광의 전법에 대한 논의」, 「명 후기 척계광의 전법 연구」 등을 발표한 바 있다.²⁷⁾

이 글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팔진도 역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기효신서』 하권 영진편(營陣篇)²⁸⁾에 번역한 내용이 있으나, 팔진도에 대한 이해나 분변의 이치를 탐구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기에 그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한 문헌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현종 5년(1664)에 간행된 판본을 국방군사연구소가 영인(影印)하여 1998년에 상하권으로 간행한 책²⁹⁾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5권 진도편(陣圖篇), 중국 명대에 저술된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무비지(武備志)』·『속무경총요(屬武經總要)』 등의 진법 문헌들을 대조하며 분석하였다.

2. 『기효신서』 팔진도(八陣圖)의 출처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는 여러 판본이 있었지만 대체로 14권

27) 洪乙杓, 「風后의 握奇經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고대 陣法의 원리」, 『軍史』 제7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제갈량 八陣法의 탐구」, 『군사논단』 제65호, 한국군사학회, 2011.

———,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양진과 팔진 원리」, 『軍史』 제8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西晉 馬隆의 西征으로 본 八陣圖」, 『中國史研究』 제83호, 中國史學會, 2013.

———, 「조선 후기 척계광의 戰法에 대한 논의」, 『韓日關係史研究』 44집, 韓日關係史學會, 2013.

———, 「明 後期 戚繼光의 戰法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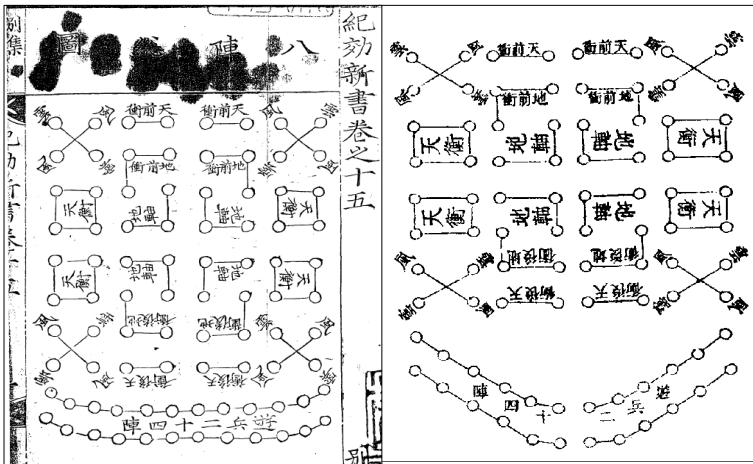
28) 유재성 역, 『紀效新書(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343~368쪽.

29) 戚繼光, 『紀效新書』 上·下,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8.

본이나 18권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14권본 『기효신서(紀效新書)』에 15권 진도편(陣圖篇), 16권 거영편(車營篇), 17권 기영편(騎營篇), 18권 등단구수(登壇口授) 등 4권을 증보하여 18권으로 구성된 조선본 『기효신서』를 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것은 이재범(李在範)³⁰과 노영구(盧永九)³¹가 분석한 바 있다.

증보한 내용을 보면 16권에서 18권까지는 척계광의 『연병실기(練兵實紀)』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거나³² 15권 진도편(陣圖篇)³³은 명나라 용정이 지은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본 『기효신서』 15권 진도편에 있는 진도(陣圖)의 도식이나 해설은 군사전문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축약되어 있기에 이 글을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팔진도(八陣圖)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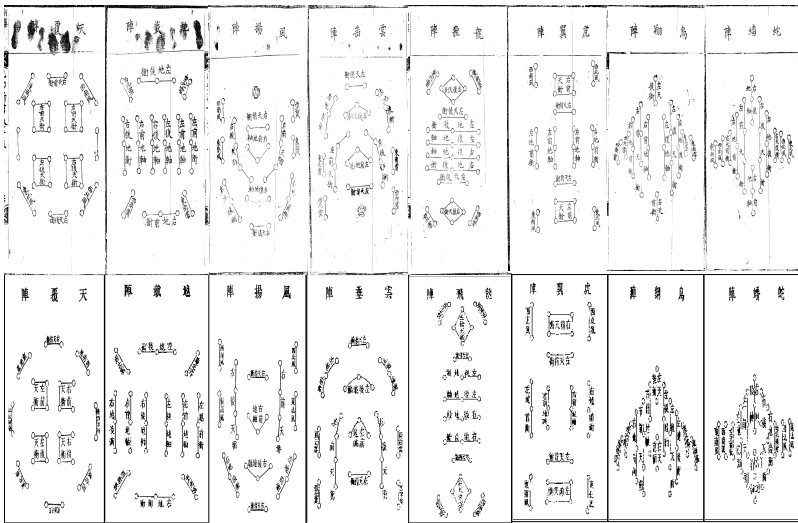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조선본, 『기효신서(紀效新書)』 하권, 335쪽.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팔진합변도설』 18쪽.

30) 戚繼光, 『紀效新書』上, 國防軍史研究所, 1998, 1~8쪽. “解制”
 31) 같은 책, 1~34쪽. “解題論文”
 32) 같은 책, 1~5쪽.
 33) 戚繼光, 『紀效新書』下, 國防軍史研究所, 1998, 335~366쪽.

조선본 『기효신서』 진도편에 있는 팔진도(八陣圖)는 <그림 1>의 왼쪽과 같으며, 이것은 <그림 1>의 오른쪽에 제시한 『팔진합변도설』의 팔진도와 같다. 이를 중심으로 전개된 천복진(天覆陣)·지재진(地載陣)·풍양진(風揚陣)·운수진(雲垂陣)·용비진(龍飛陣)·호익진(虎翼陣)·조상진(鳥翔陣)·사반진(蛇蟠陣) 등의 도식들 역시 『팔진합변도설』에 있는 변진들과 일치하며, 그것을 <그림 2>의 상(上)과 하(下)로 제시하여 대조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상(上): 조선본 『紀效新書』의 팔진도[威繼光, 『紀效新書』 下권, 國防軍史研究所, 1998. 339~354쪽]



하(下): 龍正, 『八陣合變圖說』의 팔진도[『中國兵書集成』 40冊,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3. 20~34쪽]

<그림 1>과 <그림 2>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본 『기효신서』에 수록된 팔진도는 명나라 용정이 저술한 『팔진합변도설』을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서술한 방법 역시 『팔진합변도설』의 내용과 유사하여, 먼저 팔진도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천복진·지재진으로 구분되는 제1변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나

이 해설은 내용상으로 보아 『기효신서』를 간행한 조선 문신(文臣)들의 글로 보인다. 왜냐 하면 각 진의 개념이나 배치는 『팔진합변도설』의 내용을 옮겨 놓았으나, 이것을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본문 Ⅱ장 3절’과 같은 내용보다는 팔진의 위력을 미화하는 추상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끝났기 때문이다.

1변 이후에는 풍양진·운수진의 2변, 용비진·호익진의 3변, 조상진·사반진의 4변을 수록한 뒤, 마지막에 팔진(八陣)의 총도(總圖)를 중심으로 팔방에 팔진을 전개시킨 변진전도(變陣全圖)를 그려 놓았는데, 이러한 도식은 1변에 2개진만 분변하도록 되어 있는 팔진의 특성상 과장된 것이다. 또한 팔진은 변진전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곤(坤)·태(兌)·건(乾)·감(坎)·간(艮)·진(震)·손(巽)·리(離)의 팔방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도식은 『도서편(圖書編)』³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도식하거나 인용한 사람들은 팔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시된 낭아진(狼牙陣)이나 뇌굉진(雷轟陣)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그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그 진세(陣勢)를 보면 실전보다는 속영배치도에 가깝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조선에서 원양진법을 가르치는 『기효신서』에 팔진법을 수록한 것은, 전법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팔진법은 조선의 전통 오위진법과 일맥상통하다. 당시 조선의 문무관원들은 원양진으로 훈련체계를 바꾸면서도 전통진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후대에 진법 논란으로 이어지며 『연기신편』이나 『풍천유향』, 『악기도설』과 같은 문헌들을 출현시키기도 하였다.

34) 章潢, 『圖書編』 卷一百十六[『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972冊], 595쪽.

3. 팔진도 소개

가. 출현 배경

중국에서 팔진이 출현한 배경은 태고의 전설과 함께 시작한다. 삼황오제의 첫 번째 인물 복희(伏羲)가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진 문양을 보고 그렸다는 하도(河圖)는 우왕(禹王)이 그린 낙서(洛書)와 함께 중국 역학(易學)과 수학(數學)의 기저(基底)가 되면서 정치와 사회 제 분야의 기본 제도를 정립하는 데 근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것은 군사가들에 의해 진법(陣法)으로 발전하여 군대의 조직을 편제하는 모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기획한 최초의 인물이 황제(黃帝)와 풍후(風后)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제갈량은 이것을 바탕으로 팔진도(八陣圖)를 창안하여 실전에 활용하였다. 그는 남만(南蠻)의 맹획(孟獲)을 일곱 번 사로잡아 일곱 번 풀어주는 칠금칠종(七擒七縱)의 고사를 남겼고, 위(魏)를 정벌하여 적장 사마의(司馬懿)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기에 제갈량이 죽자 그의 팔진도는 신기(神技)에 가까운 전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³⁵⁾

팔진의 변화는 집중과 분산에 있다. 집중은 적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집결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지멋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분산 역시 적의 움직임에 따라 치밀하게 변화하지만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성된 팔진은 반석 같이 견고하기에 여기에 부딪치면 강력한 적도 부서지고, 불길 같이 맹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타 버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팔진의 위력 때문에 촉군(蜀軍)에게 연패를 당한 사마의(司馬懿)는 제갈량으로부터 아녀자의 옷을 받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35) 洪乙杓, 「明後期 戚繼光의 戰法 研究」, 江原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13, 12~64쪽.

끝까지 경솔하게 출전하지 못하였다. 제갈량은 이러한 팔진의 진도(陣圖)를 백제성(白帝城) 어복주(魚腹洲)에 설치하였는데³⁶⁾ 명나라 때 용정(龍正)이란 인물이 이것을 보고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하였다.

『팔진합변도설』이 저술된 배경은 정덕(正德) 3년(1508) 10월에 사천(四川)에서 발생한 도적과 관련이 있다.³⁷⁾ 당시 서촉(西蜀) 지역에 민란이 발생하자 명나라 조정은 이를 토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쉽게 진압하지 못하였다. 그때 남장이라는 인물이 민란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한중(漢中)에 갔다가 용정과 함께 제갈량의 팔진도를 얻어 연구하면서 관청의 후원에 작은 돌을 가져다 팔진도의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궁리하다가 집결과 분산이란 변화의 이치를 터득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주(夔州) 구당현(瞿塘縣) 어복강 모래 위에 설치한 64개의 팔진 누석(壘石)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8개씩 배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풍(風-바람 같은 역습부대)·운(雲-구름 같은 포위 부대)·천형(天衡-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대)·지축(地軸-중심부대)·천전충(天前衝-전방의 돌격부대)·천후충(天後衝-전방의 예비돌격대)·지전충(地前衝-후방의 돌격부대)·지후충(地後衝-후방의 예비 돌격부대) 등으로 분류하였다. 용정이 말하길, 풍(風)이라 하고 운(雲)이라 하는 것들은 진(陣)의 이름이요, 64는 가로 세로가 8개씩 설치된 누석들을 $8 \times 8 = 64$ 로 제곱한 수(數)라 하면서, 포진(布陣-진을 전개하는 것)에는 각각의 방향이 있고, 열진(列陣-진을 열에 맞춰 배열하는 것)에는 각각의 위치가 있다³⁸⁾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6) 『圖說』, 4쪽. “合不自合, 而包含無盡, 變不徒變, 而應敵無方. 堅如盤石, 觸之者碎, 熾如烈火, 犯之者焦. 此司馬懿, 所以甘受巾幘之辱, 而終不敢輕出, 以取敗也. 武侯, 已變而陣圖在白帝城魚腹洲者, 固自若也.”

37) 홍을표, 「제갈량 팔진법(八陣法)의 탐구」, 『군사논단』 제65호, 2011, 147~150쪽.

38) 『圖說』, 3쪽. “故, 其壘石于沙, 縱橫皆八, 其曰天衡, 地軸, 天前衝後衝, 地前衝後衝, 與夫, 曰風曰雲者, 陣之名也. 六十有四者, 陣之多寡, 相乘之數也. 布之各有其方, 列之各有其位.”

64개의 진터는 안과 밖, 전과 후, 좌와 우, 네 모서리로 분산 변화하여 팔진이 되는데, 가로와 세로, 열고 닫는 것, 서로 연결되는 것, 직선과 굴곡은 각각 조리(條理)가 있었다. 그에 따라 혼련하니 비로소 행(行)과 오(伍)가 엄정(嚴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의 고찰과 수정을 거쳐 진도를 그려놓고 왼쪽에 해설을 붙여 비밀로 분류하였다.³⁹⁾

남장과 용정은 팔진의 이치와 변화를 깨우치며 출전해야 할 경우와 출전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분석하였고,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장수들로부터 사졸에 이르기까지 각자 외우고 익히게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숙달되었고, 자신감을 얻은 병사들은 적을 무찌르고자 하는 적개심이 열 배로 증가되었다⁴⁰⁾고 한다. 그래서 충진(衝陣)의 운용법을 만들어, 용감하고 정예한 병사를 가려 뽑아 돌격대를 편성하였더니, 그들이 돌격하여 포획하려고 하면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였다. 이것을 본 장수와 사졸들은 기뻐 날 뛰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용맹한 군대로 변화였고, 그들은 싸울 때 마다 승리하였다.⁴¹⁾

남장과 용정이 민란을 소탕하자 용정의 저술은 제갈량 팔진법의 원안에 가깝다고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제요(提要)를 보면 『팔진합변도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은 명(明)나라 사람 용정(龍正)이 지은 것으로 용정은 무도(武都) 사람이다. 정덕(正德) 연간에 래양(萊陽) 사람 남장이 사천(四川)을 순무(巡撫)할 때 한중(漢中)에 주둔하면서 어복강(魚腹江)에

39) 『圖說』, 39쪽. “頃者蜀盜弄兵, 予奉詔致討, 督師至漢中, 因取八陣圖而推演之. 自六十四壘, 分內外前後左右四隅, 又變而爲八陣, 縱橫開闔, 鉤聯盤屈, 各有條理. 以之訓練, 而行伍始嚴整可觀矣. 三復考訂, 遂圖註于左, 以爲秘密.”

40) 『圖說』, 5쪽. “乃取小石于廳後, 事布以合之, 起以變之, 其合其變, 應手而成, 于是以擺變陣之學竟, 發其所未發, 以成一書, 自將領以至士卒, 俾各誦而習之, 無何揣摩, 敵慨之氣, 十倍尋常.”

41) 『圖說』, 5~6쪽. “乃制爲衝陣之法, 遴選勇銳以衝之. 衝則見擒, 無能脫者, 將士欣躍, 思欲一逞. 由是奮武揚威, 屢戰屢勝.”

사람을 보내 팔진도의 누석을 그려오게 하였다. 용정은 이때 남장의 군중에 있으면서 이것을 연구하여 『팔진합변도설』을 지었고, 이 책을 촉(蜀)에서 간행하였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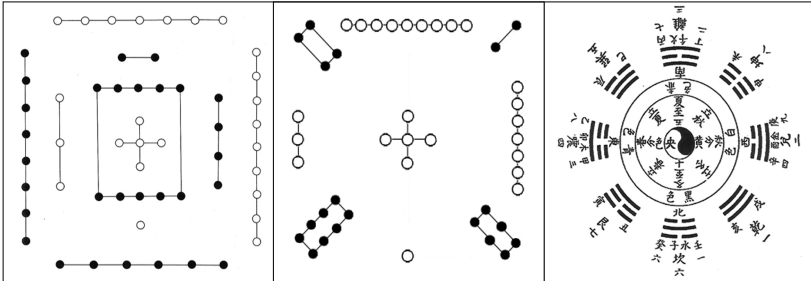
위 글과 같이 『팔진합변도설』은 명나라 용정이 저술한 것으로 용정은 팔진도의 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나, 이것을 인용한 조선본 『기효신서』에는 팔진의 도식(圖式)에 추상적인 해설만 해 놓아 실전에 적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팔진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했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팔진의 원리

팔진은 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갈량이 어복강에 설치한 64개의 누석(壘石)은 주역의 팔괘를 $8 \times 8 = 64$ 로 제공한 것이고, 24개의 유병(遊兵-유격대와 유사하다) 누석은 8괘(卦)의 3효(爻)를 제공한 수이다. 주역에 있는 각각의 괘(卦)를 보면 외형은 사각형으로 표기하여 모나계(方) 만들어 졌기에 팔진의 외형도 이에 따라 정사각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은 팔괘(八卦)와 그 원형인 하도(河圖)·낙서(洛書)를 도식한 것이다.

42) 『圖說』, 1쪽. “欽定四庫全書提要. 八陣合變圖說, 明龍正撰. 正武都人. 正德中, 萊陽藍章, 巡撫四川, 駐兵漢中, 遣人至魚腹江, 圖八陣壘石. 正時在, 章幕中, 遂推演爲圖說, 刊於蜀中.”

〈그림 3〉 하도(河圖-左)·낙서(洛書-中)·팔괘(八卦-右)



『팔진합변도설』에 수록된 설명에 의하면, 〈그림 3〉의 우측과 같이 팔괘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효(爻=畫)는 막대와 같이 길지만, 그것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원점(圓點)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원(圓)에서 나온 것이며, 각월진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괘(卦)는 점획(點劃)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방(方)은 원(圓)으로부터 출현한 것이며, 벽문(壁門)⁴³⁾은 음양을 상징하고, 악기(握機)는 비어있는 중양을 상징하여 기(奇)와 정(正)의 변화가 모두 여기서 나온다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이치로 기(奇)는 정(正)의 정(正)이 되고, 정(正) 또한 기(奇)의 기(奇)가 되기에 팔진을 운용할 때 여러 가지 원리를 서로 응용하면 무궁하게 순환 시킬 수 있다⁴⁵⁾고 하였다.

팔진은 오(五)와 대(隊)의 조직에서부터 시작하여 진(陣)과

43) 벽문(壁門)은 성문(城門)을 의미하지만『漢韓大辭典』 3권, 707쪽], 여기서는 팔진(八陣)의 8개 진(陣)을 뜻한다.

44) 기정(奇正)의 이치를 설명한 병서는 많지만 『손빈병법』 기정편(奇正篇) [『兵集』 1권, 348~364쪽]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奇)와 정(正)은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음(陰)과 양(陽), 강(強)과 약(弱), 허(虛)와 실(實), 중(衆)과 과(寡) 등 모든 상대적인 것을 전법(戰法)의 기정(奇正)이라 할 수 있다.

45) 『圖說』, 38쪽. “六十有四, 重易之卦也. 二十有四, 作易之畫也. 卦定于方以知. 故八陣象之. 畫起于圓而神, 故却月陣象之. 卦自畫起, 方自圓生. 壁門者, 陰陽之象也. 握奇者, 虛中之象也. 奇正之變, 皆出于此. 奇亦爲正之正, 正亦爲奇之奇, 彼此相用, 循環無窮.”

영(營)⁴⁶⁾을 편성하는데, 오(伍)는 오행의 생수(生數-생명의 기본을 의미한다)와 성수(成數-생명의 형상을 의미한다⁴⁷⁾)로 조직하고, 진(陣)은 팔괘의 상(象)으로 편성하며, 유병(遊兵)은 24절후(節侯)의 수(數)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5명(名)이 1오(伍)가 되고, 10오(伍)가 1대(隊)가 되는데, 5기군(旗軍)을 합치면 55가 되어⁴⁸⁾ 생(生)과 성(成)의 수(數)로 종결된다.⁴⁹⁾

이러한 팔진은 여덟 가지로 분변(分變)된다. 먼저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천복진(天覆陣)과 지재진(地載陣)이 되고,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풍양진(風揚陣)과 운수진(雲垂陣)이 되며,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어 용비진(龍飛陣)과 호익진(虎翼陣)이 되고, 대각선으로 나누어 조상진(鳥翔陣)과 사반진(蛇蟠陣)이 되는데 이것을 팔진의 변화라고 한다.⁵⁰⁾

이외에도 팔진의 후방에는 유병(遊兵)을 상징하는 24개의 누석이 있었다. 유병은 64진의 후방에 위치하여 각월진(却月陣)이라 부르며, 진문(陣門)을 열고 닫거나, 진격하고 정지할 때 간대(間隊)가 되어 팔진과 함께 행동하다가, 속영하게 되면 후방을 에둘러 호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병의 공격과 후퇴는 신속하면서 팔진의 움직임과 일치해야만 승리를 쟁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⁵¹⁾ 이상은

46) 영(營)은 부대가 주둔하거나 숙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7) 韓圭性, 『易學 原理講話』, 서울 英文社, 1957, 103쪽.

48) 5기군(旗軍)은 하도(河圖)에서 북(北)에 생수(生數) 1과 성수(成數) 6, 남(南)에 생수 2와 성수 7, 동(東)에 생수 3과 성수 8, 서(西)에 생수 4와 성수 9, 중(中)에 생수 5와 성수 10을 합한 흑백점(黑白點)들을 말한다.

49) 『圖說』, 7쪽. “推演八陣, 始于隊伍, 而成營陣. 伍者, 五行生成之數也. 陣者, 八卦之象也. 遊兵者, 二十四氣之數也. 所以五人爲伍, 十伍爲一隊, 加五旗, 軍而五十有五, 終于生成之數也.”(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림 1>을 지면에 인쇄해 놓고 연필로 하나하나 표기하면서 수학의 공식을 풀 듯 풀어나가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50) 『圖說』, 3~4쪽. “若其內外之分, 爲天覆地載, 左右之分, 爲風揚雲垂, 前後四隅之分, 爲龍飛, 爲虎翼, 爲鳥翔, 爲蛇蟠者, 此八圖之變歟.”

51) 『圖說』, 3쪽. “遊兵二十四陣, 在六十四陣之後, 名曰却月陣, 開闔作止, 間隊與八陣皆同. 下營之際, 環衛于後, 出入神速, 應敵取勝者, 此總圖之合歟.”

팔진의 개략적인 편성방법이고, 팔진의 구체적인 병력 편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팔진을 편성하는 기본인 1대(隊)는 하도(河圖)의 집합수인 5기군(旗軍)을 합친 55명이다. 1대 55명씩 편성된 8개의 대를 모아 1진(陣)을 편성하니 그 인원은 440명이며, 8개의 진(陣)을 모아 1부(部)를 편성하니 그 인원은 3,520명으로 이 병력이면 소규모의 팔진을 형성하여 양수진(兩數陣)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8개의 부(部)로 1장(將)을 편성하니 그 인원은 28,160명이며, 이 인원이라면 중간 규모의 팔진을 구성하여 모든 변화를 발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편성되는 팔진은 64괘(卦)로 완성된다. 8개의 장(將)을 모아 1군(軍)을 편성하는데 그 인원은 225,280명으로 대규모 팔진을 구성한다.⁵²⁾

위 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팔진의 편성은 하도(河圖)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도의 배치는 동·서·남·북과 중앙 등 다섯 곳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진법에서는 이것을 응용하여 5기군(旗軍)으로 편성하였다. 1대(隊)는 이들 5기군의 점을 합친 것이자 하도(河圖)의 집합수인 55명으로 편성하여 진을 조직하는 기본수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대 55명씩 편성된 8개의 대를 모아 1진(陣)을 편성하기에 1진의 인원은 440명이다. 이 진을 8개씩 모아 1부(部)를 편성하기에 1부는 3,520명이 되었으며,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소규모의 팔진을 조직하여 기(奇)와 정(正)으로 작전할 수 있는 양수진(兩數陣)을 만들 수 있다. 서진(西晉)의 마룡(馬隆)이 3,500명으로 팔진도를 구성하여 작전하였다⁵³⁾고 전하는 바와 같이 이 규모는 팔진을 운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로 보인다.

다음으로 8개의 부(部)로 1장(將)을 편성하는데 그 병력은 28,160명이 필요하며, 이 인원이라면 중간 규모의 팔진을 구성하여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64괘(卦)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52) 『圖說』, 7~8쪽. “八隊爲一陣, 有四百四十人. 八陣爲一部, 有三千五百二十人, 而爲小成, 可變兩數陣也. 八部爲一將, 有二萬八千一百六十人, 而爲中成, 八陣齊可變也. 終于六十四卦也, 八將爲一軍, 有二十二萬五千二百八十人, 而爲大成.”

53) 『晉書』卷五十七[『文淵閣四庫全書』255冊], 943쪽.

『삼국지』⁵⁴⁾를 보면 제갈량이 운용한 병력은 위군(魏軍)에 비하여 많지 않았기에 수천 또는 수만의 군대로 작전하였다. 이로 미루어 제갈량은 1부나 1장 정도의 팔진을 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8개의 장(將)을 모아 1군(軍)을 편성하려면 225,280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이 병력이며 대규모 팔진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넓은 지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진을 구성하여 전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포진하는 방법은 영진의 장대(將臺=지휘소)를 중심으로 왼쪽에 4개의 진, 오른쪽에 4개의 진을 두 층(層)⁵⁵⁾으로 배치하여 소장(小將)이 되게 한다. 또 왼편에 4부(部), 오른편에 4부를 두 층으로 배치하여 중장(中將)이 되게 한다. 다시 왼쪽에 4장(將), 오른쪽에 4장을 두 층으로 배치하여 대장(大將)이 되게 한다.⁵⁶⁾

1,000명이면 육화진(六花陣)⁵⁷⁾으로 포진이 가능하기에 부대 간격은 매 정면마다 60보씩 필요하고, 3,520명으로 편성된 소진(小陣)은 매 정면마다 120보씩 필요하며, 18,160명으로 편성한 중진(中陣)은 매 정면마다 600보씩 필요하고, 225,280명으로 편성한 대진(大陣)은 매 정면마다 1,100보씩 필요하다. 소진의 경우 매 부대마다 18보씩 떨어져야 하고, 중진의 경우 매 부대마다 86보씩 떨어져야 하며, 대진의 경우는 매 부대마다 172보씩 떨어져야 한다. 안쪽에는 중군(中軍-지휘부)의 영역으로 몇 걸음 남겨 두어 유동성을 갖게 하는데⁵⁸⁾ 이러한 간격은 고대 진법을 설명하는 『주례(周

54) 이 글에서 『삼국지』는 서진(西晉)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三國志)』를 말한다.

55) 층(層)은 열(列), 또는 가로 줄을 말하여 겹치는 것을 의미한다.

56) 『圖說』, 7~8쪽. “辨其布列營陣, 以將臺左列四陣, 右列四陣, 分爲兩層駐衛, 而爲小將. 左列四部, 右列四部, 亦分兩層, 而爲中將. 左列四將, 右列四將, 亦分兩層, 而爲大將.”

57) 육화진(六花陣)은 간혹 육화진(六華陣)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에 원문의 六華陣을 六花陣으로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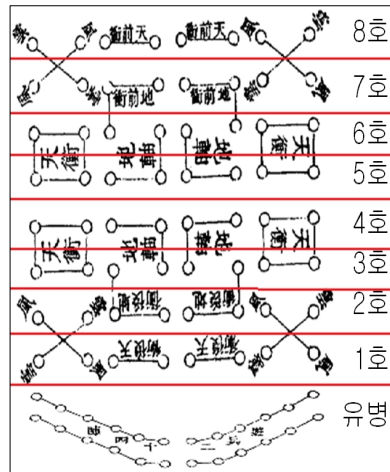
58) 『圖說』, 8~9쪽. “其制陣, 以千人可布六華陣, 每面用六十步. 以小成三千五百二十人, 可布八陣, 每面用一百二十步. 以中成二萬八千一百六十人, 每面用六百步. 以大

禮)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⁵⁹⁾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편성한 64개의 부대는 8열 8종대를 유지하면서 부대 기능에 따라 돌격부대인 충(衝)과 전력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형(衡), 팔진의 중심이 되는 축(軸), 역습을 위한 풍(風)과 운(雲) 등 다섯 종류로 편성하고, 팔진의 기본 작전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각 열마다 호(號)의 순서를 정한다.

천후충(天後衝) 4개 부대와 동북, 서북에 있는 풍(風)·운진(雲陣) 각 2개 부대를 1호(號)로 정하고, 지후충(地後衝) 4개 부대와 동북, 서북에 있는 풍(風)·운진(雲陣) 각 2개 부대를 2호로 정한다. 후지축(後地軸)과 지후충(地後衝) 각 2개 부대를 3호로 정하고, 후지축(後地軸) 4개 부대와 좌우에 위치한 후천충(後天衝) 각 2개 부대를 4호로 정한다. 전지축(前地軸) 4개 부대와 좌우의 전방에 있는 천충(天衝)은 각각 2개 부대를 5호로 정하고, 전지축(前地軸)과 지전충(地前衝) 각 2개 부대와, 좌우의 전방에 있는 천형(天衡) 각 2개 부대를 6호로 정한다. 지전충(地前衝) 4개 부대와 동남과 서남에 위치한 풍진(風陣)과 운진(雲陣) 각 2개 부대를 7호로 정하고, 천전충(天前衝) 4개 부대와 동남과 서남의 풍진과 운진 각 2개 부대를 8호로 정한다. 이외

<그림 4> 팔진의 8호



에도 본대에서 깃발로 지휘하는 신호나 포진하고 숙영하는 방법들은 서면으로 기록하여 혼란이나 착오가 발생되지 않게 하였

成二十二萬五千二百八十人，每面用一千二百步。其小成，每隊相離十八步。中成，每陣相離八十六步。大成，每部相離一百七十二步。內餘數步，加中軍而爲閑也。”

59) 『李衛公問對』[『文淵閣四庫全書』726冊], 154쪽.

다.⁶⁰⁾ 이렇게 편성된 각 호는 다음과 같은 신호에 의해 천(天)·지(地)·풍(風)·운(雲)·용(龍)·호(虎)·조(鳥)·사(蛇)의 팔진으로 변하면서 작전하였다.

중군에서 모든 진(陣)과 간진(間陣)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1·2·5·6호가 먼저 36보 앞으로 나가 진을 전개하여 한 차례만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면 진열을 수습해 팔진도(八陣圖)의 제1진이 된다. 두 번째로 신호를 보내면 3·4·7·8호가 나가 제1진의 전방 36보에서 전개하여 한 차례만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면 수습하여 팔진의 제2진이 된다. 세 번째로 신호를 보내면 제1진과 간대(間隊)의 매진에서 5·6호가 나가 제2진의 전방 36보 앞에 전개하여 한 차례만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면 수습하여 팔진의 제3진이 된다. 네 번째로 신호를 보내면 제2진이나 간대의 매진에서 7·8호가 제3진 앞 36보까지 진출하여 전개한 뒤 한 차례 싸움이 끝나면 수습하여 팔진의 제4진이 된다.⁶¹⁾

진을 편성하여 전투할 때의 핵심은 ‘적당하게 이동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부대를 정돈하는 것’이다. 수시로 부대를 정돈하지 않으면 오합지졸과 같이 싸우게 되므로 척계광은 “대오를 정돈하는 법으로 6보에서 7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지하지 않으면 정돈할 수 없는 데 그대들은 알 수 없을 뿐이다”⁶²⁾라고 하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한

60) 『圖說』, 9쪽. “以天後衝四隊, 東北西北風雲各二隊, 定作二號. 以後地軸, 地後衝各二隊, 定作三號. 以後地軸四隊, 左右後天衝各二隊, 定作四號. 以前地軸四隊, 左右前天衝各二隊, 定作五號. 以前地軸地前衝各二隊, 左右前天衝各二隊, 定作六號. 以地前衝四隊, 東南西南風雲各二隊, 定作七號. 以天前衝四隊, 東南西南風雲各二隊, 定作八號. 書于本隊旗上, 布陣下營, 不得錯亂.”(이상의 편성은 누락된 원문이 있는 것 같기에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61) 『圖說』, 9~10쪽. “聞中軍舉號令, 每陣皆間, 一二五六號先出三十六步止, 單擺開, 戰畢, 仍收作八陣圖, 爲第一陣. 二次舉號, 三四七八號出, 過第一陣前三十六步止, 單擺開. 戰畢, 仍收作八陣, 爲第二陣. 三次舉號, 第一陣又間隊, 每陣出五六號, 過第二陣前三十六步止, 單擺開. 戰畢, 仍收作八陣, 爲第三陣. 四次舉號, 第二陣又間隊, 每陣出七八號, 過第三陣前三十六步止, 單擺開. 戰畢, 仍收作八陣, 爲第四陣.”

바 있다.

중군에서 불을 지르거나 북을 쳐 신호를 보내면, 매진과 간대의 1·3·5·7호는 움직이지 않고, 2·4·6·8호가 출전하여 18보를 전진한 뒤 멈춘다. 천전충(天前衝) 4진은 전방에 위치하고, 천후충(天後衝) 4진은 후방에 위치하며, 천형(天衡) 16진은 양단(兩端)에 위치하고, 지축(地軸) 12진은 중간에 위치하며, 지전충(地前衝) 6진은 전방에 위치하고, 지후충(地後衝) 6진은 후방에 위치하며, 풍(風) 8진은 4유(維-동, 서, 남, 북)에 위치하고, 운(雲) 8진은 4각(角-동남, 서남, 동북, 서북)에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8진의 구조가 형성되게 한다.⁶³⁾

유병(遊兵) 24진은 12진씩 2개의 초(哨)로 나누되, 3진을 1호를 만들어 모두 4호가 되게 하되, 이 역시 두 층으로 나눈다. 진격하거나 분산·집합을 할 때 간대와 팔진은 같이 움직이다가 숙영하게 되면 유병은 본영(本營)의 후방을 에워싸 호위한다. 매복이나 돌격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모두 유병의 운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병은 적이 예측 불가하게 홀연히 작전한다.⁶⁴⁾

이러한 전법은 팔진 전투의 기본을 설명한 것으로 조선에서 간행한 『진법(陣法)』⁶⁵⁾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나 해설이 있으며⁶⁶⁾, 이를 통하여 조선의 오위진법은 중국의 팔진법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안명로는 척계광의

62) 戚祚國, 『戚少保年譜者編』, 北京中華書局, 2008, 73~74쪽. “此不愆于六步·七步, 乃止齊焉之法, 蓋不止不齊, 君輩未知耳.”

63) 『圖說』, 10~11쪽. “次視中軍舉起火, 點鼓, 每陣又間隊, 一三五七號不動, 二四六八號出, 前行十八步止. 天前衝四陣居前, 天後衝四陣居後, 天衡十六陣居兩端, 地軸十二陣居中間, 地前衝六陣居前, 地後衝六陣居後, 風八陣居四維, 雲八陣居四角, 自然而成八陣之規也.”

64) 『圖說』, 11쪽. “遊兵二十四陣, 分列兩哨十二陣, 三陣定作一號, 共作四號, 分列兩層, 進止開闔間隊, 與八陣皆同. 惟下營之際, 掣環于後而伏之, 取勝衝擊, 全在乎遊兵也. 是可忽乎哉.”

65) 刊寫者 未詳, 『陣法』,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刊寫年度 未詳, 25~41쪽.

66) 각주 8), 23), 24)에 소개된 책을 참고할 것.

전법을 버리고 전통진법인 오위진법으로 회귀하자며 『연기신편(演機新編)』을 저술한 바 있다.⁶⁷⁾

다. 신호와 전법

팔진을 운용하는 명령체계인 신호와 전법은 다음과 같다.

훈련할 날과 장소를 명령으로 하달하면, 각 지방의 군대는 새벽에 도착하여 7행(行)⁶⁸⁾과 7층(層)으로 정렬한다. 3,000명 이상의 4대(隊)는 1대로 합치고, 20,000명 이상의 4진(陣)은 1진(陣)으로 합치며, 200,000명 이상의 4부(部)는 1부(部)로 합치되, 정병(正兵)과 기병(奇兵)으로 분류한 2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주둔시킨다.⁶⁹⁾ 중군에서 피리를 불어 신호를 보내면 보병(步兵)이나 기병(騎兵)의 군관들은 중군에 집합하여 명령을 수령한 뒤 각 부대로 돌아가 군사들에게 전달하되 떠들거나 대오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금지시킨다.⁷⁰⁾

중군에서 첫 번째 바라(哱囉)⁷¹⁾ 소리가 울리면, 각 부대의 보병들은 모두 집합하고, 기병(騎兵)들은 말을 맨 고삐를 풀어 출동준비를 한다. 두 번째 바라소리가 울리면 보병은 깃발을 올리고 기병은 말에 탄다. 세 번째 바라가 울리고 북을 치면 부대 사이로 천천히 진격하되 북소리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디며 18보를 이동한다.⁷²⁾

67)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電子文書, 刊寫者年度 未詳, 29쪽. “八陣之制, 本於河洛 … 八陣之法, 始於此也.”; 『演機新編』, 84쪽. “八陣之法, 四四相乘, 八八相聯 … 亦失經文之義惜哉.”

68) 행(行)은 오(伍)로 세로 줄을 말한다.

69) 『圖說』, 11~12쪽. “凡令操練之日, 侵晨赴各地方, 每隊七行七層, 以三千人之上, 四隊合爲一隊, 二萬人之上, 四陣合爲一陣, 二十萬人之上, 四部合爲一部, 俱分兩層筭駐.”

70) 『圖說』, 12쪽. “聞中軍號笛響, 馬步官旗詣中軍, 聽發放訖, 回還各隊, 傳令示衆, 不許喧譁及錯亂隊伍.”

71) 바라(哱囉)는 소라나 고등 갑질, 소 뿔 등으로 만든 군대에서 쓰던 악기이다[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4권, 139쪽].

중군에서 포 한 발을 쏘고, 휘기(麾旗)⁷³⁾를 세 번 흔들면 세 번 함성을 지르며 싸운다.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면 급히 18보를 이동했다가 징소리가 울리면 싸움을 멈추고 단지 대형을 전개하기만 한다.⁷⁴⁾ 바라(鈸鑼-징의 일종)가 울리며 총을 쏘면, 궁노(弓弩)와 창·방패는 모두 전투태세를 갖춘다. 이때 군사들은 일제히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라고 세 번 함성을 지른다. 팔열(唎唎)⁷⁵⁾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며, 방울(또는 銅鈸)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두어 제1진으로 주둔시킨다.⁷⁶⁾

다시 북을 치면 후방의 모든 부대들은 천천히 진격하여 제1진을 지나 18보 앞으로 진출하였다가, 포 한 발을 쏘고 지휘기를 한 번 흔들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싸운다. 나팔소리가 들리고 북이 울리면 급히 18보를 이동했다가 징소리가 나면 정지하여 단지 전개하기만 한다. 바라소리가 울리며 총을 쏘면, 궁노와 창·방패는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제히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하고 세 번 함성을 지른다. 팔열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고, 방울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두어 제2진으로 주둔시킨다.⁷⁷⁾

세 번째 북을 치면, 후방의 제1진은 부대 사이로 천천히 출전하여 제2진 앞 18보를 지나 위치하다가, 포 한 발을 쏘고 기를 한 번

72) 『圖說』, 12쪽. “聞中軍第一聲唎囉響, 各隊步兵皆集, 騎兵解絆牽馬. 第二聲唎囉響, 步兵舉旗, 騎兵乘馬. 第三聲唎囉響, 點鼓, 間隊出緩行, 一鼓一蹶, 至十八步.”

73) 휘기(麾旗)의 휘(麾)는 대장기로 지휘기를 말하며, 기(旗)는 그 외의 신호기를 말한다. 휘기는 휘치(麾幟)라고도 하여 대장이 지휘하는 기를 뜻한다[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15권, 1177, 1179쪽].

74) 『圖說』, 12쪽. “中軍放砲一箇, 麾旗三次, 發喊三聲. 戰聲唎叭響, 發鼓, 急行十八步, 金響止, 單擺開.”

75) 팔열(唎唎)은 새가 우는 소리를 뜻한다. 여기서는 새소리 나는 악기의 명칭으로 추정된다.

76) 『圖說』, 12쪽. “鑼響, 放銃, 弓弩槍牌俱作戰勢, 官軍齊唱護護護三聲. 唎唎響, 發喊. 捧鈸響, 收隊, 駐爲第一陣.”

77) 『圖說』, 12~13쪽. “再點鼓, 後面隊盡出緩行, 過第一陣前十八步, 放砲一箇, 麾旗一次, 發喊一聲. 戰聲唎叭響, 發鼓, 急行十八步, 金響止, 單擺開. 鑼響, 放銃, 弓弩鎗牌皆作戰勢, 齊唱殺殺殺三聲. 唎唎響, 發喊. 捧鈸響, 收隊, 駐爲第二陣.”

흔들면 한 번 함성을 지르며 싸운다. 나팔소리가 들리고 북을 치면 급히 18보를 이동하고, 징소리가 나면 멈추어 단지 전개만 한다. 라⁷⁸⁾소리가 울리며 총을 쏘면, 궁노와 창·방패는 모두 전투준비를 갖추고 일제히 “돌격! 돌격! 돌격!” 하고 세 번 함성을 지르다가 팔열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고, 방울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두어 주둔하여 제3진이 된다.⁷⁹⁾

네 번째 북을 치면 후방의 제2진 역시 부대 사이로 천천히 제3진의 18보 앞을 지나 출전하여 포 한 발을 쏘고 기를 한 번 흔들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싸운다. 나팔소리와 북이 울리면 급히 18보를 이동하였다가 징소리가 나면 멈추어 전개하기만 한다.

라소리가 울리며 총을 쏘면, 궁노와 창·방패는 앞서와 같이 전투준비를 갖추고 일제히 “야! 야! 야!”⁸⁰⁾ 하고 세 번 함성을 지른다. 팔열소리나 나면 고향을 지르며, 바라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두어 제4진으로 주둔시킨다.⁸¹⁾

중군에서 삼지(三枝)⁸²⁾에 불을 올리고 북을 치면, 각 진들은 모두 부대 사이 18보 앞으로 나가 각자 원래 숙영하고 있던 곳으로

78) 라(羅)는 구리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이다[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14권, 493쪽].

79) 『圖說』, 13쪽. “三次點鼓, 後第一陣又間隊出緩行, 過第二陣前十八步, 放砲一箇, 麾旗一次, 發喊一聲. 戰聲喇叭響, 發鼓, 急行十八步, 金響止, 單擺開. 羅響, 放銃, 弓弩鎗牌皆作戰勢, 齊唱突突突三聲. 口別咧響, 發喊. 捧鉢響, 收隊, 駐爲第三陣.”

80) 가(訶)는 큰소리로 크게 꾸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말 “야!”로 대용(代用)하였다.

81) 『圖說』, 13~14쪽. “四次點鼓, 後第二陣亦間隊出緩行, 過第三陣前十八步, 放砲一箇, 麾旗一次, 發喊一聲. 戰聲喇叭響, 發鼓, 急行十八步, 金響止, 單擺開. 羅響, 放銃, 弓弩鎗牌如前作勢, 齊唱訶訶訶, 三聲. 口別咧響, 發喊. 捧鉢響, 收隊, 駐爲第四陣.”

82) 삼지(三枝)는 세 개의 화전(火箭)이나 3자루의 화총(火銃)을 이용한 신호 방법이다.

① 戚繼光, 『紀效新書』 17卷, [『文淵閣四庫全書』 728冊, 659쪽]. “發伏路號令. 一, 凡白晝, 遇有賊至即, 放手銃三箇, 起火三枝.”

② 胡宗憲, 『籌海圖編』 12卷, [『文淵閣四庫全書』 584冊, 368쪽]. “嚴城守. 凡遇夜間, 賊集衆攻門, 方許放火箭三枝, 再緊發銃三箇, 十分緊急, 鳴羅三通, 原派本門遊兵.”

달려간다. 좌우와 전후 중횡으로 진형을 형성하면서 정면은 외부로 향하게 한다. 징을 치면 멈추고, 나팔소리가 나면 단지 진을 전개하기만 하면서 팔진도와 같이 분산된 부대들을 결속하여 전체적인 팔진을 형성한다. 팔렬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고, 바라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둔다.⁸³⁾

진(陣)을 변형시켜 돌격하려면, 먼저 전초(前哨)의 금(金)·고(鼓)·기(旗) 2벌, 향기(響器) 1부(副), 금(金) 2구(口), 라(羅) 2면(面), 고(鼓) 12면(面), 솔밭(搥鉢) 2개(箇), 대총(大銃) 4구(口)와 중군의 금(金)·고(鼓)·정(旌)·번(旛)을 예전같이 준비하여 해당 초관(哨官)⁸⁴⁾이 천진(天陣)의 안에 들어가 사용한다.⁸⁵⁾

다음으로 중군에서 흑(黑), 황(黃) 두 가지 기를 올리면, 천복(天覆)과 지재(地載) 두 진으로 한 번 변화한다. 포 한 발을 쏘고 북을 치면 천진에 해당되는 부대는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여 천진을 전개하고, 지진에 해당되는 부대는 천천히 북쪽으로 움직여 지진을 전개한다. 각자 정해진 위치에 도착하여 기를 한 번 흔들면 큰 함성을 한 번 지르며 싸운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 급히 진영으로 달려갔다가 징소리가 울리면 싸움을 멈추고 전개하기만 한다. 라소리가 나고 총을 쏘면 궁노와 창, 방패는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제히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하고 세 번 소리를 지르고, 팔렬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다가 솔밭소리가 나면 부대를 거두어들인다.⁸⁶⁾

83) 『圖說』, 14쪽. “中軍放起火三枝, 點鼓, 每陣皆間隊出, 前行十八步上, 各趨原分地方下營. 左右前後縱橫擺成行列, 面俱朝外, 金響止戰, 聲喇叭響, 單擺開, 如陣總圖, 隅落鈎連, 以成八陣之規. 叩列響, 發喊, 搥鉢響, 收隊.”

84) 초관(哨官)은 명·청대의 군제(軍制)에서 1초(哨)의 통솔관이며, 1초(哨)는 100명으로 되어 있다[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2000, 148쪽].

85) 『圖說』, 14쪽. “若欲衝演變陣者, 先整前哨, 金鼓旗二對·響器一副·金二·口羅二面·鼓十二面·搥鉢二箇·大銃四口, 中軍金鼓旗旛如舊, 聽本哨官, 入天陣內用.” (본초관은 직명으로도 쓰였다[潘季馴, 『潘司空奏疏』 卷六. “袁州衛, 千戶李曾, 充本哨官” … “千戶陳道, 充本哨官.”])

86) 『圖說』, 14~15쪽. “次中軍舉玄黃二色旗, 爲一變天覆地載二陣, 放砲一箇, 點鼓, 該天陣隊往南緩行, 布天陣, 該地陣隊往北緩行, 布地陣. 各至地界, 麾旗一次, 發

중군에서 삼지에 불을 올리면, 2진은 모두 이동하여 총진(總陣-팔진 전체)에 있던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 북(鼓)·바라(哮囉)·나팔(喇叭)·호적(號笛) 등을 일제히 울려 승전을 축하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다. 다시 변진(變陣)하려면 앞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기와 북, 악기 등의 신호장비들은 좌초관이 진의 내부에 갖고 들어와 운용한다.⁸⁷⁾

중군에서 5채(綵)와 5훈(暈) 두 기(旗)를 올리면, 두 번째로 변화하여 풍양(風揚)과 운수(雲垂) 두 진으로 전개한다. 포 한 발을 쏘고, 북을 치면 풍진(風陣)에 해당되는 부대는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풍진을 전개하고, 운진에 해당되는 부대는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여 운진을 전개한다. 진격과 정지, 전투하고 철수하는 신호들은 모두 앞의 예에 준하지만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를 세 번 외친다.⁸⁸⁾

다시 변진하려면 우초관(右哨官)이 영채에 들어가 중군에서 청색과 백색 두 기를 울려 제3번의 용비(龍飛)와 호익(虎翼) 양진(兩陣)이 된다. 포 한 발을 쏘고 북을 치면 용진(龍陣)에 편성된 부대는 동남으로 이동하여 용진을 전개하고, 호진(虎陣)에 편성된 부대는 서북으로 이동하여 호진을 전개하며 “돌격! 돌격! 돌격!” 하고 세 번 외친다. 진격과 정지, 전투 신호방법 등은 모두 앞의 예와 같다.⁸⁹⁾

喊一聲戰，聲喇叭響，發鼓，急趨下營，金響止，單擺開。鑼響，放銃，弓弩鎗牌，皆作戰勢，齊唱護護三聲。喇叭響，發喊。擗鈸響，收隊。”

- 87) 『圖說』, 15쪽. “中軍放起火三枝，二陣皆動，復回總陣。打得勝鼓·哮囉·喇叭·號笛齊響，各歸原地。喇叭響發喊。擗鈸響，收隊。中軍放起火三枝，二陣皆動，復回總陣。打得勝鼓，哮囉喇叭號笛齊響，各歸原地。若再變陣，亦如前撥，旗鼓響器等件，聽左哨官入陣用。”
- 88) 『圖說』, 15~16쪽. “中軍舉五綵五暈二旗，則爲第二變，風揚雲垂二陣。放砲一箇，點鼓，該風陣隊往西緩行，布風陣，該雲陣隊往東緩行，布雲陣。其進止·動蕩回營號頭，皆准前例，但唱殺殺聲。”
- 89) 『圖說』, 16쪽. “若再變陣，右哨官入寨，中軍舉青白二旗，爲第三變龍飛虎翼二陣。放砲一箇，點鼓，該龍陣隊往東南，布龍陣，該虎陣隊往西北，布虎陣。但唱突突突三

다시 변진하려면 후초관(後哨官)이 진에 들어가 중군에서 적색과 흑색 두 기를 올려 제4변의 조상(鳥翔)과 사반(蛇蟠) 양진(兩陣)이 된다. 포 한 발을 쏘고 북을 치면 조진(鳥陣)에 편성된 부대는 동북으로 이동하여 조진을 전개하고, 사진(蛇陣)에 편성된 부대는 서남으로 이동하여 사진으로 전개한 뒤 “야! 야! 야!” 하고 세 번 외친다. 그에 따른 호령과 신호방법은 앞의 예와 같다.⁹⁰⁾

이상의 글 역시 팔진 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팔진합변도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수록한 『진법』이나 『기효신서』가 번역되어 있기에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⁹¹⁾

4. 팔진도의 네 가지 변화

팔진은 천(天-천복진)·지(地-지재진)·풍(風-풍양진)·운(雲-운수진)·용(龍-용비진)·호(虎-호익진)·조(鳥-조상진)·사(蛇-사반진) 등의 여덟 가지 진형을 말하며, 이 여덟 가지 진형은 모두 총진 64개 부대를 반으로 나눈 32개 부대씩 편성된다. 따라서 한 번에 2개 이상의 진형으로는 변화할 수 없으며, 이 변화는 내외(內外)와 좌우(左右)·전후(前後)·사우(四隅) 등 4가지로 진행된다.

聲，其進止動蕩號頭，皆同前例。”

90) 『圖說』, 16쪽. “若再變陣，後哨官入陣，中軍舉赤黑二旗，爲第四變鳥翔蛇蟠二陣。放砲一箇，點鼓，該鳥陣往東北，布鳥陣，該蛇陣隊往西南，布蛇陣。但唱訶訶訶三聲，其號頭皆與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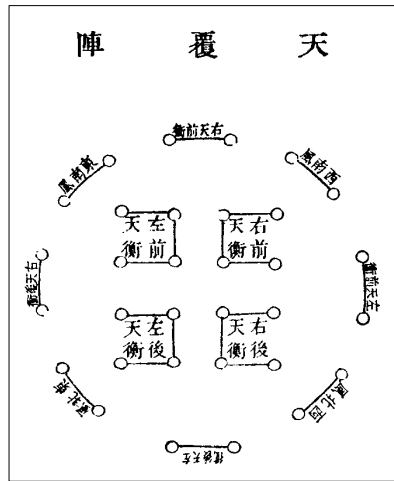
91) 이 부분 역시 『기효신서(紀效新書)』나 『진법(陣法)』에 유사한 내용이나 도면이 있다.

가. 내외(內外)의 분변(分變)

64개 부대로 구성된 팔진을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여 변화시킨 것이 천복진(天覆陣)과 지재진(地載陣)이다. 제1변의 천복진은 <그림 5>와 같이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로 분변하여 사주방어(四周防禦)를 한다. 천복진을 구성하는 부대 중에 풍진(風陣)은 편성되어 있지만 운진(雲陣)은 편성되지 않는다.

우천전충(右天前衝) 2개 부대가 정남쪽의 전방에 배치되고, 동남과 서남에 각각 2개 부대로 편성된 풍진(風陣)이 천형(天衡)의 양쪽에 배치된다. 좌우 전방에 위치한 천형(天衡)은 각각 4개 부대로 구성되어 중앙의 전방에 배치되고, 좌천전충(左天前衝)과 우천후충(右天後衝)은 각각 2개 부대로 편성되어 좌우에 배치된다. 좌우 후방에 위치한 천형(天衡)은 각각 4개 부대로 중앙의 후방에 배치하고, 좌천후충(左天後衝) 2개 부대는 후방에 배치하며, 동북과 서북에 있는 2개의 풍진은 후방의 양쪽에 배치된다. 이러한 배치는 풍부천(風附天)이라하여 원형을 형성한다.⁹²⁾

<그림 5> 천복진(天覆陣)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20쪽.

위 인용문은 <그림 1>의 팔진도에 있는 4곳에 위치한 풍진(風陣) 8개 부대, 4곳에 위치한 천형(天衡) 16개 부대, 2곳에 위치한 천전충(天前衝) 4개 부대, 2곳에 위치한 천후충(天後衝) 4개 부대 등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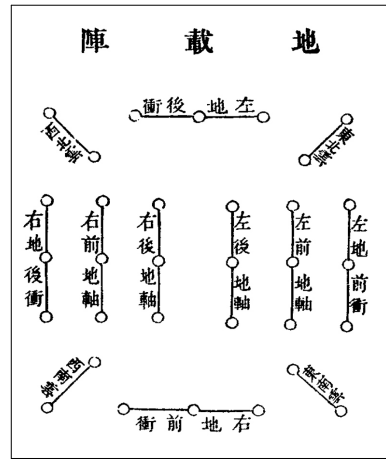
92) 『圖說』, 21쪽. “內外之分, 爲第一變. 外之分變, 爲天覆陣者, 有風無雲, 用總陣外面之隊. 以右天衝二隊列前, 居正南. 以東南西南風各二隊, 列天衝兩維. 以左右前天衝各四隊, 列前中. 以左右天前後衝各二隊, 列兩端. 以左右後天衝各四隊, 列後中. 以左天後衝二隊, 列後. 以東北西北風各二隊, 列後兩維. 謂風附天而形圖也.”

두 32개 부대가 총진의 위치에서 <그림 5>의 천복진으로 변형하는 자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 천복진으로 변하고 남은 32개 부대는 지재진으로 변한다.

<그림 6>의 지재진은 만물을 포용하여 길러내고 있는 대지를 상징한 것이다. 팔진의 내부에서 분변하여 운진(雲陣)은 있지만 풍진(風陣)이 없다.

<그림 6> 지재진(地載陣)

좌지후충(左地後衝) 3개 부대는 전방 정북(正北)에 배치하고, 동북과 서북 운진은 각각 2개 부대로 지후충(地後衝)의 양쪽 모서리에 배치한다. 좌후지축(左後地軸)과 우후지축(右後地軸)은 각각 3개 부대로 중간의 좌우에 배치하고, 좌전지축(左前地軸)과 우전지축(右前地軸)은 각각 3개 부대로 후지축(後地軸)의 좌우에 배치하며, 좌지후충(左地後衝)과 우지후충(右地後衝) 각각 3개 부대로 지축(地軸)의 양단에 배치한다. 우지전충(右地前衝) 3개 부대는 후방에 배치하고, 동남과 서남의 운진은 각각 2개 부대씩 지전충(地前衝)의 양쪽 모서리에 배치한다. 이러한 배치는 운부지(雲附地)라 하여 방형(方形)을 형성한다.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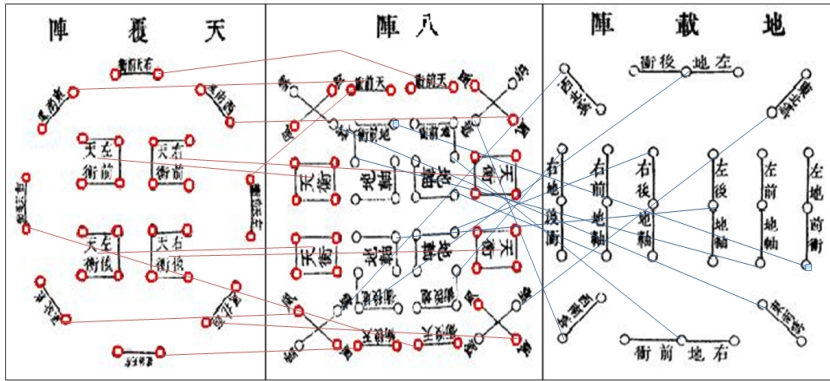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22쪽.

위 인용문 역시 <그림 1>의 팔진도에 있는 4곳의 운진(雲陣) 8개 부대, 4곳의 지축(地軸) 12개 부대, 4곳의 지충(地衝) 12개 부대 등 모두 32개 부대가 총진의 위치에서 <그림 6>의 천복진으로 변화하는 위치를 설명한 것이다.

93) 『圖說』, 23쪽. “內之分變, 爲地載陣者, 有雲無風, 用總陣中間之隊. 以左地後衝三隊列前, 居正北. 以東北西北雲, 各二隊, 列地後衝兩角. 以左右後地軸各三隊, 列左右中. 以左右前地軸各三隊, 列後地軸之左右. 以左右地前後衝各三隊, 列軸之兩端. 以右地前衝三隊, 列後. 以東南西南雲各二隊, 列地前衝兩角. 謂雲附地而形方是也.”

<그림 5>와 <그림 6>의 도식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7>을 이용하여 분변 전과 분변 후의 위치를 실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그림 7>의 중앙에 있는 팔진의 충진에서 좌측으로 연결한 원점(圓點)은 천복진으로 분변하도록 계획된 부대로 명령신호에 의해 좌측의 천복진으로 분변하며, 나머지 부대는 청색 화살표를 따라 우측의 지재진으로 분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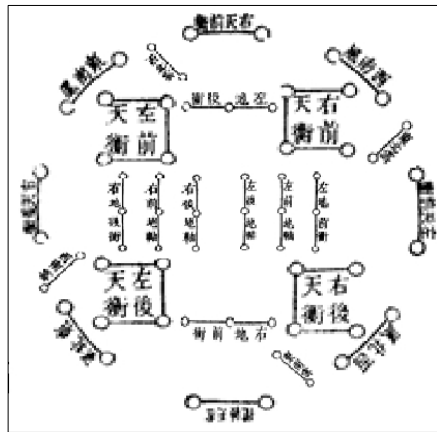
<그림 7> 팔진(中)에서 천복진(左)과 지재진(右)으로 변화



<그림 7>의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천복진과 지재진을 중앙에 있는 팔진의 좌우로 분변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림 8>과 같이 외부와 내부로 분변해야 하며, 이것이 팔진의 제1변이다.

제1변을 분석해 보면, 외부는 천복진으로 외곽을 방어하고 있으며, 내부는 지재진이 후속지원을 대기하고 있는

<그림 8> 제1변 내외(內外)의 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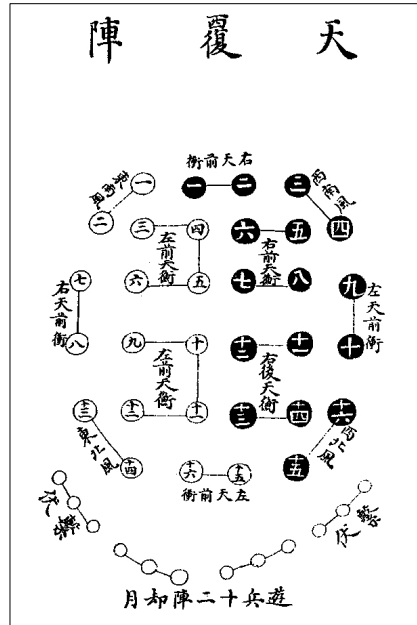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받아 견고한 수비가 필요한 경우에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팔진의 64개 부대는 모두 전투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지재진은 전투부대로써 역습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후방근무지원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는 <그림 9>와 같이 각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변한다.⁹⁴⁾

제1변에서 천복진과 지재진을 구성하고 있는 부대편성을 보면, 천복진은 천형(天衡)을 중심으로 좌우의 천충(天衝)과 풍진(風陣)을 배치하여 각 기능 부대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재진은 지축(地軸)을 중심으로 지충(地衝)과 운진(雲陣)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긴밀한 협동작전을 할 수

있게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협동작전 방식은 제2변, 제3변, 제4변도 같이 적용하였다. 이것은 등패(籐牌)와 낭선(狼筈), 창(槍)과 당파(鎗鈸) 등의 무기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싸우는 척계광의 원앙진과 일맥상통하다. 척계광 자신도 원앙진은 옛 진법에서 발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⁹⁵⁾

<그림 9> 각 진의 전개 순서



출처: 『圖書編』[『四庫全書』, 972冊, 598쪽].

94) 章潢, 『圖書編』 卷一百十六[『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972쪽], 5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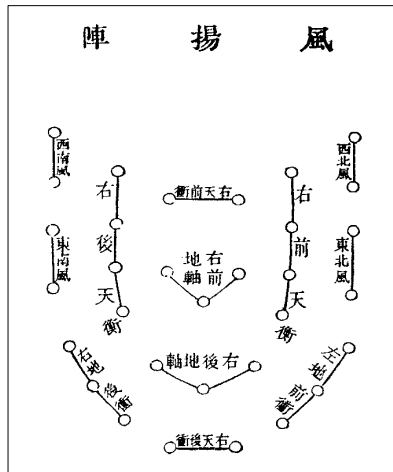
95) 戚繼光, 高揚文·陶琦 主編, 『戚少保奏議』, 「上應詔陳言乞普恩賞疏」, 中華書局, 2001, 25쪽. “故於創艾之餘, 深求古法, 再可練習, 以圖後功.”

나. 좌우(左右)의 분변

팔진을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분변한 것이 풍양진(風揚陣)과 운수진(雲垂陣)이다. 제2변에서 팔진의 절반을 <그림 10>과 같이 오른쪽으로 분변시켜 형성한 풍양진(風揚陣)은 회오리바람의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풍진(風陣)은 편성하였으나 운진(雲陣)이 없다.

<그림 10> 풍양진(風揚陣)

우천전충(右天前衝) 2개 부대를 전방에 배치하여 정서(正西)를 향하게 하고, 서북과 서남의 풍진 각 2개 부대를 천전충(天前衝)의 양쪽 뒤에 포진한다. 우전지축(右前地軸) 3개 부대를 중앙의 전방에 포진하고, 우측 전후에 있는 천형(天衡) 각 4개 부대를 지축의 좌우에 배치한다. 동북과 동남의 풍진 각 2개 부대를 충(衝)의 양쪽에 배치하고, 후지축(後地軸) 3개 부대를 중앙의 후방에 배치한다. 우측에 있는 전후 지충(地衝) 3개 부대를 지축의 양쪽에 배치하고, 우측에 있는 우천후충(右天後衝) 2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한다. 이러한 포진은 풍(風)을 형진(衡陣)에 배속시키기에 풍부형(風附衡)이라 부르며 첨예한 형태를 하고 있다.⁹⁶⁾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24쪽.

풍양진은 팔진도에 있는 4곳의 풍진(風陣) 8개 부대와 오른쪽에 위치한 전후의 천형(天衡) 8개 부대, 전후충(前後衝) 4개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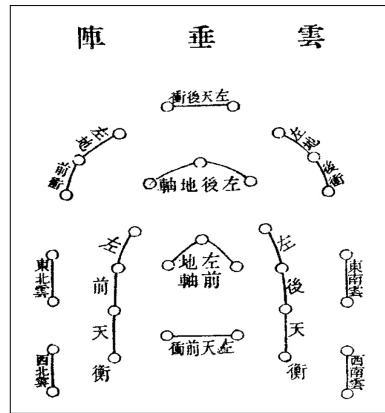
96) 『圖說』, 25쪽. “左右之分, 爲第二變. 右之分變, 爲風揚陣者, 有風無雲, 用總陣右邊一半隊. 以右天前衝二隊列前, 居正西. 以西北西南風各二隊, 列天前衝兩維. 以右前地軸三隊, 列前中. 以右前後天衝各四隊, 列地軸左右. 以東北東南風各二隊, 列衝兩端. 以後地軸三隊, 列後中. 以右地前後衝各三隊, 列地軸兩維. 以右天後衝二隊, 列後. 謂風附衝而形銳是也.”

전후에 있는 지축(地軸) 6개 부대, 전후의 지충(地衝) 6개 부대 등 32개 부대로 구성된다. 그리고 풍양진으로 변화하고 남은 부대는 운수진이 된다.

〈그림 11〉은 왼쪽으로 분변한 운수진(雲垂陣)으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형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운(雲)은 있지만 풍(風)이 없다.

〈그림 11〉 운수진(雲垂陣)

좌천후충(左天後衝) 2개 부대는 전방에 배치하여 정동(正東)을 향하게 하고, 왼쪽의 지전충(地前衝)과 지후충(地後衝) 각 3개 부대는 천후충(天後衝)의 양쪽에 배치한다. 좌후지축(左後地軸) 3개 부대는 중앙의 전방에 배치하고, 왼쪽 앞에 있는 천형(天衡) 4개 부대와 뒤에 있는 천형 4개 부대는 각각 지축(地軸)의 좌우에 배치하며, 좌전지축(左前地軸) 3개 부대는 천형의 중앙에 배치하고, 동남과 동북의 운진(雲陣) 각 2개 부대는 천형의 양쪽에 배치한다. 좌천전충(左天前衝) 2개 부대는 후방인 정서(正西)에 배치하고, 서남과 서북의 운진 각 2개 부대는 천전충(天前衝)의 양쪽에 배치된다. 이러한 배치는 형진(衡陣)에 운진(雲陣)이 배속되는 운부형(雲附衡)이라 하여 집합도 하고 분산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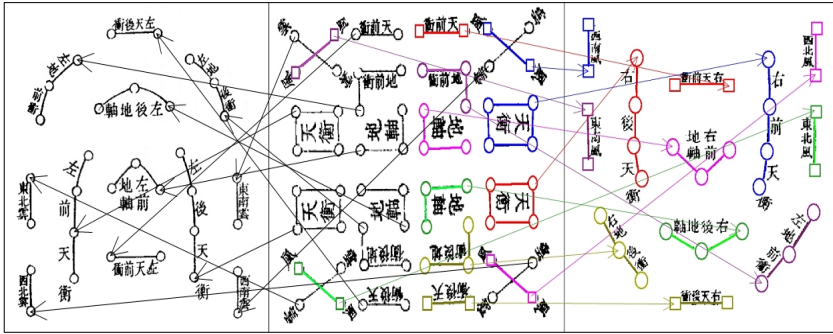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권, 26쪽.

운수진은 팔진도에 있는 4곳의 운진 8개 부대와 왼쪽에 있는 2곳의 천형(天衡) 8개 부대, 2곳의 전후 천충(天衝) 4개 부대, 2곳의 지축(地軸) 6개 부대, 2곳의 지전충(地前衝) 6개 부대 등 모두 32개 부대가 총진의 위치에서 〈그림 11〉과 같이 분변한 것이다.

97) 『圖說』, 25쪽. “左之分, 變爲雲垂陣者. 有雲無風. 用總陣左邊一半隊, 以左天後衝二隊列前, 居正東. 以左地前後衝各三隊, 列天後衝兩維. 以左後地軸三隊, 列前中. 以左前後天衝各四隊, 次列地軸之左右. 以左前地軸三隊, 列天衝之中. 以東南東北雲各二隊, 列天衝兩端. 以左天前衝兩隊列後, 居正西. 以西南西北雲各二隊, 列天前衝兩維. 謂雲附衡, 而形有聚有散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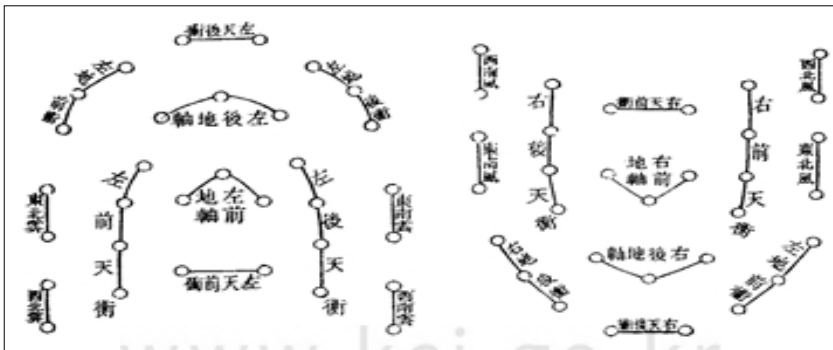
제2분변 역시 <그림 10>과 <그림 11>의 도식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그림 12>를 이용하여 분변 전과 분변 후의 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도식해 보았다.

<그림 12> 64陣(中)에서 雲垂陣(左, 黑色)과 風揚陣(右, 色線)의 변화



<그림 12>의 중앙에 있는 팔진에서 우측 실선 방향으로 연결한 원점은 모두 풍양진으로 분변하도록 계획된 부대이며, 나머지 부대는 좌측 실선으로 연결한 위치에서 운수진으로 분변한다. 이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에 팔진을 도식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림 13>과 같이 중앙의 팔진이 없어지고 좌우로 분변된 2개의 진만 존재하며, 이것이 팔진의 제2변이다.

<그림 13> 제2변 좌우의 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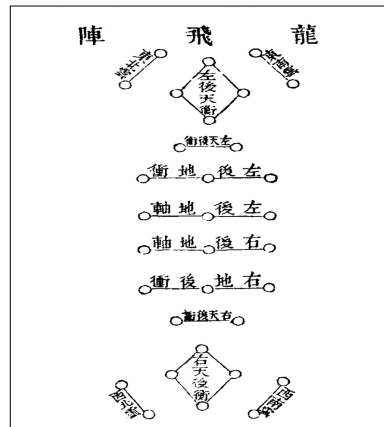


제2변은 밀집된 64개 부대가 좌우로 갈라지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반으로 나누지 않고 원양진과 같이 각 기능부대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게 연결된 상태에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포진한다. Ⅱ장 3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신호방법에 따라, Ⅱ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동방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좌측은 운수진으로 포진하여 침예한 공격 형태를 취하고, 우측은 풍양진으로 포진하여 포위작전을 준비한다. 이러한 진형은 풍양과 운수 두 진을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으로 적절히 운용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적을 교란시키는 한편, 강력한 공격작전을 전개하면서 이에 따른 전과확대도 꾀하고자 구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전후(前後)의 분변

팔진을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어 용비진(龍飛陣)과 호익진(虎翼陣)으로 포진한 것이 제3변이다. <그림 14>는 후방으로 분변한 용비진으로 운진(雲陣)은 있으나 풍진(風陣)이 없다. 용비진은 변화무쌍한 용을 의미한 포진으로, 도식을 보면 여기에 편성된 부대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용비진(龍飛陣)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권, 28쪽.

동남과 동북의 운진(雲陣) 각 2개 부대는 동남쪽에 배치하여 양익(兩翼)이 된다. 좌후천형(左後天衝) 4개 부대는 전방에 배치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좌천후충(左天後衝) 2개 부대는 천형의 다음에 배치하며, 좌지후충(左地後衝) 3개 부대는 천형의 그 다음에 배치한다. 좌우의 후지축(後地軸) 각 3개 부대는 지충(地衝)의 중앙에 배치하고, 우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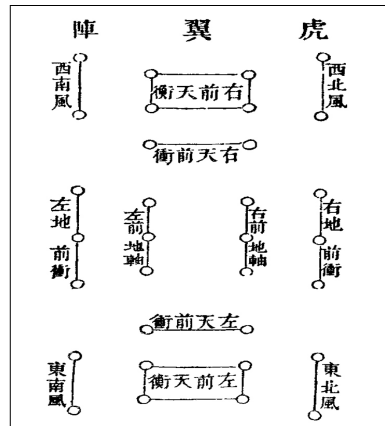
충(右地後衝) 3개 부대는 지축의 다음에 배치한다. 우천후충(右天後衝) 2개 부대는 지충의 다음에 배치하고, 우후천형(右後天衡) 4개 부대는 후방에 배치하여 꼬리가 되게 한다. 서남과 서북에 있는 운진 각 2개 부대는 형(衡)의 양쪽에 배치하여 날개가 된다. 이러한 포진법은 구름이 용의 뒤를 따른다는 운종용(雲從龍)으로 하늘을 나는 용을 의미한다.⁹⁸⁾

용비진은 팔진도 4곳에 있는 운진 8개 부대, 후방 2곳에 있는 천형(天衡) 8개 부대, 좌우 후방에 있는 천후충(天後衝) 4개 부대, 좌우 후방에 있는 지축(地軸) 6개 부대, 좌우 후방에 있는 지축(地軸) 6개 부대 등 모두 32개 부대가 팔진의 위치에서 <그림 14>와 같이 용을 상징하는 형태로 분변하여 구성되었다.

<그림 15>는 전방에 분변한 호익진(虎翼陣)으로 풍진(風陣)이 있으나 운진(雲陣)이 없다. 외견상 정사각형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머리와 꼬리, 앞발과 뒷발, 그리고 양익(兩翼) 등이 비호(飛虎)를 상징하고 있다.

서북과 서남의 풍진(風陣) 각 2개 부대는 서북의 양쪽에 배치하여 앞발이 되고, 우전천형(右前天衡) 4개 부대는 전방에 배치하여 머리가 된다. 우전천충(右前天衝) 2개 부대는 천형의 다음에 배치하고, 좌전지축(左前地軸)과 우전지축

<그림 15> 호익진(虎翼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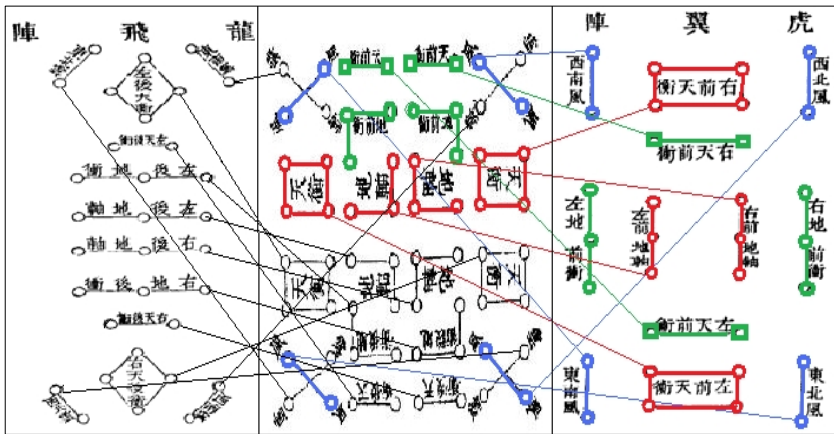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30쪽.

98) 『圖說』, 25쪽. “前後之分, 爲第三變. 後之分變, 爲龍飛陣者, 有雲無風, 用總陣後一半隊. 以東南東北雲, 各二隊列東南, 爲兩翼. 以左後天衡四隊, 列前爲首. 以左天後衝二隊, 列天衝次. 以左地後衝三隊, 列天衝次. 以左右後地軸各三隊, 列地衝中. 以右地後衝三隊, 列地軸次. 以右天後衝二隊, 列地衝次. 以右天後衝四隊, 列後爲尾. 以西南西北雲各二隊, 列衝二維, 爲翼. 謂雲從龍而形象龍也.”

(右前地軸) 각 3개 부대는 중앙에서 좌우로 배치하며, 좌지전충(左地前衝)과 우지전충(右地前衝) 각 3개 부대는 지축의 양쪽 가에 배치하여 날개가 된다. 좌천전충(左天前衝) 2개 부대는 지축의 다음에 배치하고 좌전천형(左前天衡) 4개 부대는 후방에 배치하여 꼬리가 된다. 동북과 동남의 풍진(風陣) 각 2개 부대는 천형의 양쪽에 배치하여 발이 된다. 이러한 포진법은 바람이 호랑이를 쫓아간다는 풍종호(風從虎)를 의미하며 호랑이를 상징한다.⁹⁹⁾

호익진은 팔진도에 있는 4곳의 풍진 8개 부대, 전방 2곳에 있는 좌우 천형(天衡) 8개 부대, 좌우 전방에 있는 천전충(天前衝) 4개 부대, 좌우 전방에 있는 지축(地軸) 6개 부대, 좌우 전방에 있는 지축(地軸) 6개 부대 등, 모두 32개 부대가 총진의 위치에서 <그림 15>와 같이 분변하여 구성되었다.

<그림 16> 팔진(中)에서 용비진(左)과 호익진(右)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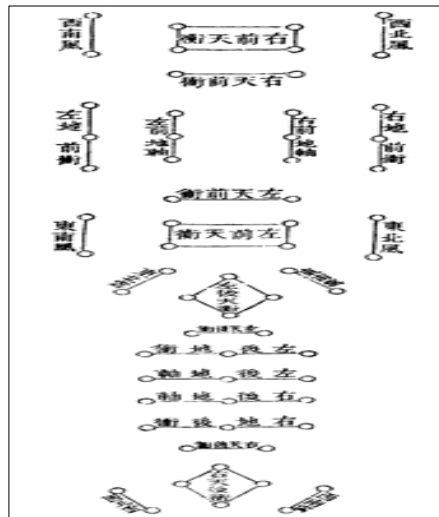


99) 『圖說』, 29쪽. “前之分變, 爲虎翼陣者, 有風無雲, 用總陣前一半隊. 以西北西南風各二隊, 列西北二維, 爲足. 以右前天衝四隊列前, 爲首. 以右前天衝二隊, 列天衝之次. 以前左右地軸各三隊, 列中之左右. 以左右地前衝各三隊, 列地軸兩廂, 爲翼. 以左前天衝二隊, 列地軸之次. 以左前天衝四隊列後, 爲尾. 以東東南風各二隊, 列天衝二維, 爲後足. 謂風從虎而形象虎也.”

이러한 제3분변 역시 <그림 14>나 <그림 15>의 도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림 16>을 이용하여 분변 전과 분변 후의 위치를 실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그림 16>의 중앙에 있는 팔진에서 우측 실선을 따라 연결된 부대는 모두 호익진으로 명령신호에 의해 우측으로 분변하며, 좌측 실선을 따라 연결된 부대는 동시에 좌측의 용비진으로 분변한다. 이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에 팔진을 도식해 놓았지만, 실제는 <그림 17>과 같이 전후로 분변해야 하며 이것이 팔진의 제3분변이다.

제3분을 보면, 전방은 호익진이 강력한 공격 형태를 띠고 있으며, 후방은 용비진이 후속지원 작전을 위해 대기하는 형국을 하고 있다. 호익진이나 용비진 모두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부대의 기능에 따라 머리와 팔, 다리에 해당하는

<그림 17> 제3분 전후의 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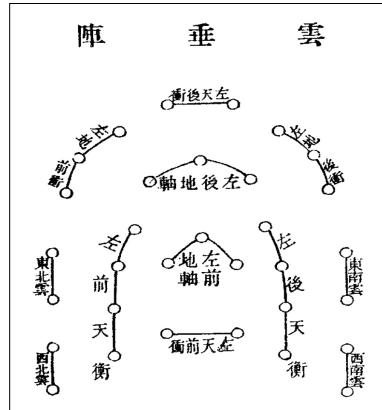
위치에 배치하였고, 그 부대들은 용과 호랑이의 신체부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였다. 여기서도 원양진과 같이 각 기능부대 간에 긴밀한 협동작전이 가능하도록 밀접하게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진형은 적진에 강력한 공격을 가하여 파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돌파작전에 용이한 진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사우(四隅)의 분변

제4변은 64개 부대로 구성된 팔진을 사우(四隅-대각선)로 분변하여 조상진(鳥翔陣)과 사반진(蛇蟠陣)을 형성하였다. <그림 18>의 조상진은 팔진의 동북과 서남 두 모퉁이에 분변한 것으로 운진(雲陣)이 있으나 풍진(風陣)이 없다. 조상진은 32개 부대를 신속하게 돌격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새가 날아가는 듯한 형태로 포진하였다.

좌천후충(左天後衝) 2개 부대는 전방인 동북에 배치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우천전충(右天前衝)은 2개 부대는 후방에 배치하여 꼬리가 되게 한다. 좌후지축(左後地軸) 3개 부대는 천충(天衝)의 우측에 배치하고, 우전지축(右前地軸) 3개 부대는 천충의 좌측에 배치한다. 좌후천형(左後天衡) 4개 부대는 좌후지축(左後地軸)의 오른쪽에 배치시키고, 우전천형(右前天衡) 4개 부대는 우전지축(右前地軸)의 왼쪽에 배치한다. 좌지후충(左地後衝)은 3개 부대는 좌후천형(左後天衡)의 오른쪽에 배치하고, 우지전충(右地前衝)도 3개 부대는 우전천형(右前天衡)의 왼쪽에 배치한다. 동북과 동남의 운진(雲陣) 각 2개 부대는 좌지후충(左地後衝)의 오른쪽에 배치하여 오른쪽 날개가 되게 하고, 서북과 서남의 운진 각 2개 부대는 우지전충(右地前衝)의 왼쪽에 배치하여 좌측 날개가 되게 한다. 이러한 포진법은 운진(雲陣)이 형진(衡陣)에 배속되는 운부형(雲附衝)으로 새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¹⁰⁰⁾

<그림 18> 조상진(鳥翔陣)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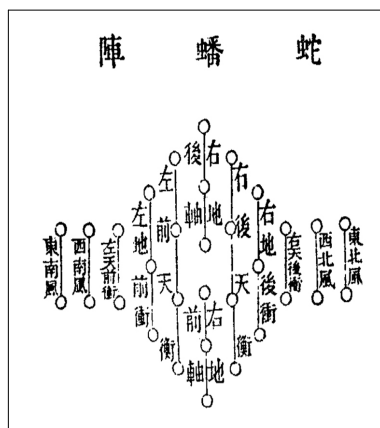
100) 『圖說』, 33쪽. “四隅之分 爲第四變. 東北西南二隅, 變爲鳥翔陣, 有雲無風. 用總陣二隅之隊. 以左天後衝二隊列前, 居東北, 爲首. 以右天前衝二隊列後, 爲尾. 以左後地軸三隊, 列天衝右. 以右前地軸三隊, 列天衝左. 以左後天衡四隊, 列軸右. 以右前天衡四隊, 列軸左. 以左地後衝三隊, 列天衝右. 以右地前衝三隊, 列天衝左. 以東北東南雲各二隊, 列地衝右, 爲羽翼. 以西北西南雲各二隊, 列地衝左, 爲羽翼. 謂雲附衝而形象鳥翔也.”

조상진은 팔진도에 있는 좌우와 전후의 각 기능 부대들을 고루 분배하였다. 좌천후충 2개 부대를 머리로 삼고, 우천전충 2개 부대를 꼬리로 삼은 뒤, 그 우측에 좌후지축 3개 부대를 배치하고, 좌측에 우전지축 3개 부대를 배치하였다. 그 다음에는 좌우 전후의 천형 4개 부대씩 양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좌우 전후에 있는 지충 3개 부대씩 배치한 뒤, 날개의 끝에 해당하는 곳에 4개의 운진을 좌우로 배치하여 새가 날아가는 형태를 갖게 하였다.

〈그림 19〉의 사반진(蛇蟠陣)은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는 형태를 하고 서북과 동남 두 모퉁이에 분변한 것으로, 풍진(風陣)은 있으나 운진(雲陣)이 없다.

〈그림 19〉 사반진(蛇蟠陣)

우후지축(右後地軸) 3개 부대를 서남의 전방에 배치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좌전지축(左前地軸) 3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여 꼬리가 되게 한다. 우후천형(右後天衡) 4개 부대를 지축의 오른쪽에 배치하고, 좌전천형(左前天衡) 4개 부대를 지축의 좌측에 배치한다. 우지후충(右地後衝) 3개 부대를 우후천형(右後天衡) 오른쪽에 배치하고, 좌지전충(左地前衝) 3개 부대를 좌전천형(左前天衡)의 왼쪽에 배치한다. 우천후충(右天後衝) 2개 부대를 우지후충(右地後衝) 오른쪽에 배치하고, 좌천전충(左天前衝) 2개 부대를 좌지전충(左地前衝)의 왼쪽에 배치한다. 서북풍 2개 부대는 우천후충(右天後衝)의 오른쪽에, 서남풍 2개 부대는 좌천전충(左天前衝)의 왼쪽에 배치하고, 동북풍 2개 부대는 서북풍 왼쪽에, 동남풍 2개 부대는 서남풍의 왼쪽에 배치한다. 이러한 포진은 풍진(風陣)이 지축(地軸)에 배속되는 풍부축(風附軸)으로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는 형태를 상징한다.¹⁰¹⁾



출처: 『중국병서집성』 제40책, 34쪽.

101) 『圖說』, 33쪽. “西北東南二隅, 變爲蛇蟠陣. 有風無雲, 用總陣二隅之際, 以右後地軸三隊列前, 居西南, 爲首. 以左前地軸三隊列後, 爲尾. 以右後天衡四隊, 列軸右.”

〈그림 19〉의 사반진 역시 팔진도에 있는 좌우와 전후의 각 기능 부대들을 고루 분배하였다. 우후지축(右後地軸) 3개 부대로 머리를 만들고, 좌전지축(左前地軸) 3개 부대로 꼬리를 만든 뒤, 우후천형(右後天衡) 4개 부대를 지축의 오른쪽에, 좌전천형(左前天衡) 4개 부대를 지축의 좌측에 배치하였으며, 우지후충(右地後衝) 3개 부대를 그 오른쪽에 배치하고, 좌지전충(左地前衝) 3개 부대를 그 왼쪽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우천후충(右天後衝) 2개 부대를 다시 그 오른쪽에 배치하고, 좌천전충(左天前衝) 2개 부대를 그 왼쪽에 배치하였다. 서북풍 2개 부대는 오른쪽에, 서남풍 2개 부대는 왼쪽에 배치하고, 동북풍 2개 부대는 오른쪽 끝에, 동남풍 2개 부대는 서남풍의 왼쪽 끝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포진은 풍진(風陣)이 지축(地軸)에 배속되어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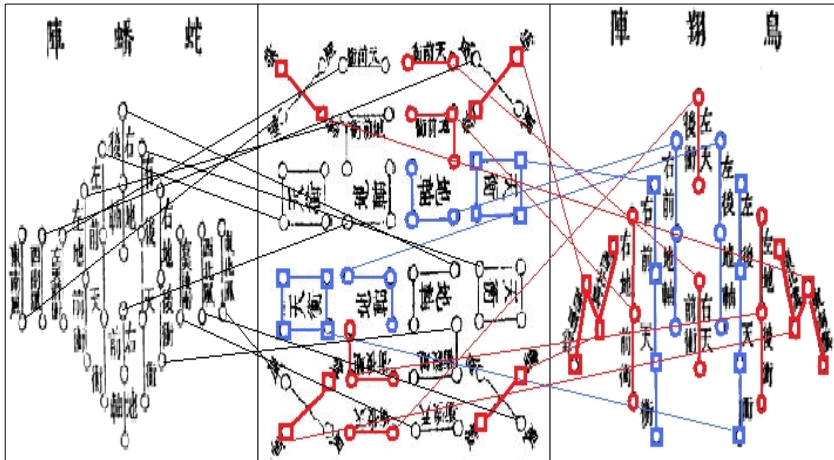
제4분변 역시 〈그림 18〉과 〈그림 19〉의 도식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그림 20〉을 이용하여 분변 전과 분변 후의 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도식해 보았다.

〈그림 20〉의 중앙에 있는 팔진의 총진에서 우측 실선으로 표기한 부대는 모두 조상진으로 분변하도록 계획된 부대로, 명령신호에 의해 실선과 연결된 위치로 이동하며, 나머지 부대는 좌측 실선과 연결된 위치로 이동한다. 이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에 팔진을 도식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림 21〉과 같이 대각선으로 분변해야 하며, 이것이 팔진의 제4변이다.

제4변 역시 1, 2, 3변과 같은 이치로 분변하며, 각 기능부대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게 조직되었다. 조상진은 맹금류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날렵하게 공격할 수 있는 진형을 갖추고 있고, 사반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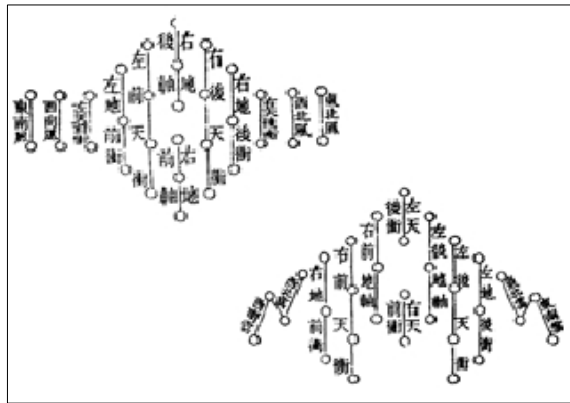
以左前天衡四隊，列軸左。以右地後衝三隊，列天衡右。以左地前衝三隊，列天衡左。以右天後衝二隊，列地衝右。以左天前衝二隊，列地衝左。以西北風二隊，列天衝右。以西南風二隊，列天衝左。以東北風二隊，列西北風右。以東南風二隊，列西南風左。謂風附軸而形象蛇蟠也。”

〈그림 20〉 팔진(中)에서 사반진(左)과 조상진(右)으로 변화



맹독을 가진 독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조상과 사반 두 개의 진은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되어 기정(奇正)의 변화를 할 수 있으며 ‘x’자 형태로 바꾸어 포진하기도 한

〈그림 21〉 제4변 사우(四隅)의 분변



다. 또한, 대각선 좌측 전방은 사반진이 강력한 방어를 위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각선 우측 후방은 조상진이 신속한 역습작전을 위해 대기하는 형국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진형은 전과확대를 위한 신속한 기동이 요구될 경우에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본 팔진의 변화는 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운용이나 특징 등은 한두 가지 형태로 단정

짓기 어렵다. 한 예로 음(陰)을 기(奇)라 하고 양(陽)을 정(正)이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陽)이 기(奇)가 되고 음(陰)이 정(正)이 되기도 하여 작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원앙진의 전법을 보면, 등패는 방어장비지만 상황에 따라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는 공격장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어떤 전장 상황을 가상하여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사변(思辨)을 필요로 하는 전술공부에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작전에서 일정한 방식을 버리라는 교훈은 고대 병법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도 ‘같은 전법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¹⁰²⁾’는 가르침이 있다. 군사작전은 철저한 기밀을 요하기 때문이다.

64개 부대로 구성된 팔진의 총진에서 4가지로 분변한 팔진의 부대 편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해 보았다.

<표> 분변에 따른 팔진의 부대 편성

구 분	제 1 변		제 2 변		제 3 변		제 4 변	
	천복진	지재진	풍양진	운수진	용비진	호익진	조상진	사반진
풍(風) 8개 부대	8		8			8		8
운(雲) 8개 부대		8		8	8		8	
천형(天衡) 16개 부대	16		8	8	8	8	8	8
천전총(天前衝) 4개 부대	4		2	2		4	2	2
천후총(天後衝) 4개 부대	4		2	2	4		2	2
지전총(地前衝) 6개 부대		6	3	3		6	3	3
지후총(地後衝) 6개 부대		6	3	3	6		3	3
지축(地軸) 12개 부대		12	6	6	6	6	6	6
계 64개 부대	32	32	32	32	32	32	32	32

102) 孫武, 『孫子』[『文淵閣四庫全書』, 726冊, 臺灣商務印書館, 1983], 50쪽. “其戰勝不服, 而應形於無窮.”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분변, 즉 외부와 내부, 좌측과 우측, 전방과 후방, 대각선 등, 어느 경우나 64개 부대를 32개 부대씩 나누어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풍(風)과 운(雲)은 어느 경우에도 섞이지 않지만 다른 기능 부대들은 1변을 제외하고, 진형에 따라 반반씩 나누어 배치하여 팔진을 구상한 인물이 다양한 분변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진(八陣)과 오위진법(五衛陣法), 그리고 원앙진(鴛鴦陣)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팔진은 부대를 기능별로 양분하며 네 가지 변화를 통하여 여덟 가지로 분변하지만, 오위진법은 적과 접촉하는 부분만 원(圓)·방(方)·곡(曲)·직(直)·예(銳)의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대 자체는 큰 변화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앙진은 소규모 부대의 전법으로 운용되었기에 팔진이나 오위진법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진법은 모두 하도와 낙서로부터 시작되는 기본원리를 갖고 있기에, 서로 일맥상통하는 공통된 원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작전형태가 달라지는 전장에서 어떤 진법이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운용하는 사람의 기량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분석해 본 팔진도(八陣圖)와 천지풍운용호조사(天地風雲龍虎鳥蛇) 8개의 진도(陣圖)는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기간에 매우 고심하여 기획한 작전도(作戰圖)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장과 용정은 이 팔진도로 부대를 훈련시켜 서측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조선에서는 『기효신서』를 간행할 때 증보판에 추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5. 맺음말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도입한 척계광의 『기효신서』는 조선군의 훈련체제로 자리매김하며 이후에 저술된 여러 병서(兵書)들의 모범이 되었다. 중국에 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는 14권본과 18권본이 있었지만, 조선 현종 5년(1664)에 간행된 조선본 『기효신서』는 14권본에 15권 진도편(陣圖篇), 16권 거영편(車營篇), 17권 기영편(騎營篇), 18권 등단구수(登壇口授) 등을 증보하여 18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18권의 조선본 『기효신서』 중에서 15권 진도편(陣圖篇)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 수록된 팔진도(八陣圖)와 이를 분변시켜 포진한 천복진(天覆陣)·지재진(地載陣)·풍양진(風揚陣)·운수진(雲垂陣)·용비진(龍飛陣)·호익진(虎翼陣)·조상진(鳥翔陣)·사반진(蛇蟠陣) 등의 도식(圖式)은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였다. 다만 설명문은 두 문헌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의미는 유사하여 조선본 『기효신서』의 팔진도는 명나라 용정이 저술한 『팔진합변도설』에서 인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 본 팔진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대에 따라 오늘날의 병종(兵種)이나 병과(兵科)에 해당하는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충(衝)·형(衡)·축(軸)·풍(風)·운(雲)과 후방에 위치한 유병(遊兵)으로 구분하였다. 각 부대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충은 돌격부대로, 형(衡)은 전과확대 부대로, 축(軸)은 지휘부와 전투근무지원 부대로, 풍(風)은 기동력이 우수한 기병(騎兵)부대로, 운(雲)은 전차부대로, 유병(遊兵)은 유격부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을 운용한 팔진전법의 특징은 조선의 오위진법이나 고대 그리스의 팔랑크스 전법과 같이 하나로 밀집된 형태로 싸우지 않고, 진 전체가 기(奇)와 정(正) 두 곳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것이다.

- 제1변 : 외부와 내부로 변화하는 천복진(天覆陣)과 지재진(地載陣)
- 제2변 : 좌측과 우측으로 변화하는 풍양진(風揚陣)과 운수진(雲垂陣)
- 제3변 : 전방과 후방으로 변화하는 용비진(龍飛陣)과 호익진(虎翼陣)
- 제4변 : 대각선 방향으로 변화하는 조상진(鳥翔陣)과 사반진(蛇蟠陣)

위의 4가지 분변(分變)은 모두 팔진을 둘로 나누어 변화시키는 것이다. 팔진을 나누는 의미 중 하나는, 적이 공격할 때 부대를 양쪽으로 분산시켜 공격받는 부분을 비우면 적은 공격력은 무력화되거나 감소된다. 이때 둘로 갈라진 아군이 적의 좌우나 전후 또는 대각선 등에서 역공하면, 강력한 파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선본 『기효신서』에 수록된 팔진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첫째, 조선본 『기효신서』에 수록된 팔진도는 명나라 용정이 저술한 『팔진합변도설』에서 인용해 온 것이다.
- 둘째, 팔진도의 분변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 네 가지로 분변하여 여덟 개의 진을 형성한다.
- 셋째, 임진왜란 이후 척계광의 전법을 도입한 조선이었으나, 전통진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문헌에 남겨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미미한 소득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전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과 아군의 군사력 등을 포함한 전장의 제반 상황에 따라 지휘자가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팔진의 네 가지 변화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글은 지금까지 분석해 본 팔진들이 어떠한 전장상황에서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규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조선본 『기효신서』의 15권에 수록된 진도편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식 하나하나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작전은 그 시대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국가의 흥망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물론 『기효신서』나 이 글에서 분석해 본 팔진도의 내용이 현대 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국군을 지휘하고 있는 유능한 전술·전략가들에게 제공되어 뛰어난 전투기술을 계발(啓發)할 수 있는 밑거름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정의 팔진도를 포함하여 중국 고대의 팔진론(八陣論)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나, 척계광(戚繼光)은 이를 응용하여 원양진(鴛鴦陣)이란 독특한 전법을 만들어 왜구와 싸울 때마다 전승(全勝)을 거두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왜선을 격파한 것은, 그가 탁월한 기략(機略)을 갖추었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까지 전해진 병법(兵法)이나 진법(陣法)은 물론, 조선술(造船術)과 무기 제조술 등이 뒷받침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효신서』와 같은 옛 문헌들이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나아가 전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군인들로부터 보다 나은 연구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5.1.9, 심사수정일: 2015.2.17, 게재확정일: 2015.2.24]

주제어 : 『기효신서(紀效新書)』,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 팔진(八陣), 팔진도(八陣圖), 남장(藍章), 용정(龍正), 척계광(戚繼光), 원양진(鴛鴦陣), 남병(南兵), 진도편(陣圖篇)

<ABSTRACT>

The analysis of Bazhentu included in Jixiaoxinshu compiled in Joseon Dynasty

Hong, Eul-Pyo

Joseon Dynasty brought in Jixiaoxinshu written by Qi Jiguang to drill the government army in Nabing's warfare of Ming Dynasty leading the recapturing operation of Pyeongyang castle to a success in Imjinwaeran(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t that time, Qi Jiguang's Jixiaoxinshu was composed of 14 books or 18 books, Joseon published a 18 volume- book as supplementing and adding 14 books to Jindo(formation diagram) part of 15'th, Geoyeong(operating battle wagons) part of 16'th, Giyoung(operating cavalry) part of 17'th and Deungdangusoo of 18'th volume.

As a result of analyzing Jindo part of them, Bazhentu included in it and the drawings and systems such as Cheonbokjin, Jijaejin, Poongyangjin, Woonsujin, Yongbijin, Hoikjin, Josangjin and Sabanjin formed after splitted and changed were same as Bazhenhebiantushuo's ones written by Lanzhang and Longzheng in Emperor Wujong era of Ming Dynasty. Although the explanation parts are difficult from each other somewhat, basic meanings are similar to, so the conclusion that Bazhentu included in Jixiaoxinshu compiled in Joseon was excerpted from Bazhenhebiantushuo written by Longzheng of Ming Dynasty could be made.

The strategy of Bazhentu have 4 types of splitting and changing like Cheonbokjin and Jijaejin transforming into outside or inside, Poongyangjin and Woonsujin shifting to the right or the left, moving back or forth and Josangjin and Sabanjin altering diagonally and each splitting and changing part is making changes as splitting entire Bazhen into two sides. The one meaning of splitting and changing Bazhen was seemed to weaken enemy's attack power by vacating the attacked part as dispersing the army in both directions when the enemy were attacking,

and the same time, the powerful destruction effect was expected by counterattacking enemy's left and right, back and forth, or diagonal side.

As a result of analysing Bazhentu included in Jixiaoxinshu compiled in Joseon from this writing, following three conclusion could be made.

First, Bazhentu included in Jixiaoxinshu compiled in Joseon was excerpted from Bazhenhebiantushuo written by Longzheng of Ming Dynasty.

Second, Bazhentu forms eight types of battle formation as splitting and changing into 4 ways in a regular way.

Third, although Joseon dynasty adopted Qi Jiguang's strategy after Imjinwaeran(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battle formation and wanted to preserve it by writing documents.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Jindo part of the Jixiaoxinshu's 15'th volume compiled in Joseon, it shows that each drawing is for the operation planned very carefully and the operations abiding by these could fetch the grave result deciding the outcome of the battles and causing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Of course, it is hard for these Jixiaoxinshu or Bazhentu's contents analyzed in this writing to be applied in modern battles. But, these fighting ways coul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excellent combat skills as providing those for competent tacticians or strategists commanding the Korean army.

Key words : “Jixiaoxinshu(紀效新書)”, “Bazhenhebiantushuo(八陣合變圖說)”,
Bazhen(八陣), Bazhentu(八陣圖), Lanzhang(藍章), Longzheng
(龍正), Qi Jiguang(戚繼光), Yuanyangzhen(鴛鴦陣).